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정도표현에 대한 척도의미론적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정 민 채

현대 한국어 정도표현에 대한 척도의미론적 연구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정 민 채

정민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현대 한국어 정도표현에 대한 척도의미론적 연구

정민채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정도부사'라는 어휘 부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둘 이상의 문법소와 어휘소가 결합한 구성이 정도부사와 같이 정도표시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도표현의 목록을 확보하여 정도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관찰하고 기술한다. 둘째, 척도구조(scale structure) 개념을 도입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일관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론적·논리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재고찰하는 한편 척도의미론에서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각 정도표현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관찰하고, 이것이 구성 전체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척도의미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어휘 부류가 맥락에 따라 그 척도구조를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정도표현, 정도, 정도성, 정도표시, 척도의미론, 유계성, 사건구조, 척도구조

학번: 2020-21874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 2
1.3. 선행 연구 ····· 5
1.4. 논의의 구성 ····· 8

2. 기본 논의 ····· 9
2.1 정도성, 정도어, 정도 표시 ····· 9
2.2. 정도표현과 정도부사 ····· 10
2.2.1. 정도표현의 개념 ····· 10
2.2.2. 정도표현과 정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 12
2.3. 척도의미론(scalar semantics) ····· 15
2.3.1. 척도의미론의 접근법 ····· 15
2.3.2. 유계성(boundedness) ····· 18
2.3.3. 척도구조(scale structure) ····· 23
2.3.3.1. 정도성에 따른 형용사의 척도구조 ····· 23
2.3.3.2. 사건구조에 따른 동사의 척도구조 ····· 24
2.3.3.3. 문맥에 따른 척도구조 ····· 27

3. 정도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 ····· 29
3.1. '-다 못해' ····· 29
3.1.1. '-다 못해'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 29
3.1.1.1. 연결어미 '-다(가)' ····· 29
3.1.1.2. 부정문을 만드는 '못하-' ····· 32
3.1.2. 합성적 의미 '-다 못하-'와 정도표현 '-다 못해' ····· 33

3.1.3. ‘-다 못해’의 통사적 특징 ····· 37
3.1.4. ‘-다 못해’의 의미적 특징 ····· 39
3.2. ‘아무리 -아/어도’ ····· 44
3.2.1. ‘아무리 -아/어도’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 44
3.2.1.1. 부사 ‘아무리’ ····· 44
3.2.1.2. 연결어미 ‘-아/어도’ ····· 47
3.2.2. ‘아무리 -아/어도’의 통사적 특징 ····· 49
3.2.3. ‘아무리 -아/어도’의 의미적 특징 ····· 50
3.3. ‘하도 -아/어서’ ····· 53
3.3.1. ‘하도 -아/어서’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 53
3.3.1.1. 부사 ‘하도’ ····· 53
3.3.1.2. 연결어미 ‘-아/어서’ ····· 56
3.3.2. ‘하도 -아/어서’의 통사적 특징 ····· 57
3.3.3. ‘하도 -아/어서’의 의미적 특징 ····· 59
3.4. ‘한 X 하-’ ····· 61
3.4.1. ‘한 X 하-’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 61
3.4.1.1. 관형사 ‘한’ ····· 61
3.4.1.2. 기능동사 ‘하-’ ····· 62
3.4.2. 합성적 의미의 ‘한 X 하-’와 정도표현 ‘한 X 하-’ ···· 64
3.4.3. ‘한 X 하-’의 통사적 특징 ····· 65
3.4.4. ‘한 X 하-’의 의미적 특징 ····· 66

4. 정도표현의 공기관계와 척도구조 ····· 68
4.1.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어휘의 내재적 척도구조 ····· 68
4.1.1. 형용사 ····· 68
4.1.2. 동사 ····· 71
4.1.3. 명사 ····· 73
4.2.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어휘의 우연적 척도구조 ····· 74

4.2.1. 내재적 척도구조가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 ····· 74
4.2.2. 척도구조를 새로이 지니는 경우 ····· 76

5. 결론 ····· 80

참고문헌 ····· 82
Abstract ····· 86

1. 서론

1.1. 연구 목적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도’를 표시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정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언어 요소인 정도부사가 사용역을 막론하고 그 상대적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강조’의 표현 효과를 낳기도 하고, 화자의 표현 의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기표현과 의사전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정도’를 표시하는 언어 요소로는 정도부사가 꼽힌다.

(1) ㄱ.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ㄴ. 나는 지금 몹시 배고픈 상태이다.
ㄷ. 요즘 민수와 영수의 사이가 좀 나빠졌다.

(1)은 흔히 사용되는 정도부사가 포함된 문장 몇 개를 보인 것이다. (1ㄱ)은 정도부사 ‘너무’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강아지의 ‘귀여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1ㄴ)은 정도부사 ‘몹시’를 통해 화자의 ‘배고픔’의 정도가 큼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1ㄷ)은 정도부사 ‘좀’을 통해 ‘민수와 영수의 사이’가 ‘나빠진’ 정도가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부사의 의미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는 정도표시가 주로 어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최지영 2020). 한국어에서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개별 정도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정도부사의 목록을 확정하고 이를 통사적, 의미적 차원에서 분류한 연구,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 연구, 사용역(register)을 도입하

여 정도부사들 사이의 화용론적 특징을 탐구하고자 했던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도부사 외에는 개별 어미의 다양한 용법 중 하나로 [정도]를 다룬 것을 제외하면, '정도'를 표시하는 다양한 형태가 폭넓게 고찰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도부사를 대상으로 한 풍부한 선행연구의 도움을 받아 어휘적 차원 이상의 정도 표시 형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둘 이상의 어휘소 또는 문법소가 결합하여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표현[1]이다.

따라서 정도표현을 고찰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국어의 '정도' 표시가 어휘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이 지각한 세계를 평가하고 판단한 결과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문법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규칙의 조합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들 뒷받침할 만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사전이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구성 차원의 '정도' 표시를 다룸으로써, 언중들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에 한발 다가간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한 본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도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관찰하고 기술한다. 둘째, 척도구조(scale structure) 개념을 도입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를 관찰하고 기술한다.

1.2. 연구 대상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정도부사'라는 어휘 부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1) 정도표현의 개념에 대하여는 2.1, 2.2를,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정도표현에 대하여는 1.2. 참고.

않는다. 신어에서는 '극혐', '꿀잼'과 같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나타내고 싶은 정도를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활용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또 '온 정성을 다해 노래하다'의 '온 정성을 다해'처럼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구나 절을 그때그때 만들어 정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표현들은 아래와 같이, 정도부사와 같은 단어가 아니면서,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만들어지며 정도를 나타내는 구나 절도 아닌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의 관심은 어휘소와 문법소가 둘 이상 결합하여 일종의 구성으로 사용되면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현들이다.

(2) ㄱ.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다.
ㄴ. 얼마 전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20분씩 운동한다.
ㄷ. 어릴 때부터 한 인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의 밑줄 친 표현들의 공통점은, 정도어와 어울리면서 그 정도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문장에서 정도부사가 전형적으로 담당하던 의미 영역을, 위 (2)에서는 둘 이상의 어휘소 또는 문법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정도부사를 지닌 문장으로 환언하였을 때 (2)와 의미적으로 유사한지를 점검해 보면 (2)의 표현들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ㄱ.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너무 선선하다/쌀쌀하다.
ㄴ. 얼마 전부터는 몹시 바빠도 매일 20분씩 운동한다.
ㄷ. 어릴 때부터 인물이 아주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3)은 각각 (2)와 의미가 통하도록, 문장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정도부사로 바꾼 것이다. (2ㄱ)의 경우, (3ㄱ)으로 쉽게 환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ㄱ)과 (3ㄱ)은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2

ㄴ)이나 (2ㄷ)은 (3ㄱ)이나 (3ㄷ)처럼 간단하게 환언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무리 -아/어도'와 '한 X 하-'에 정도부사와 같은 정도 표시의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2ㄴ), (2ㄷ)에서 정도표시 이외에 다른 의미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면, 밑줄 친 '아무리 -아/어도'와 '한 X 하-'를 정도부사로 단순히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ㄴ)의 '아무리 -아/어도'의 경우, (3ㄴ)에서 '아무리'를 '몹시'로 환언했을 때 그 정도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만이 유지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다른 하나는 이들 구성이 문법적으로 부사에 상당한다고 할 만한 구성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특히 (2ㄷ)의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환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의미적 차원이 아니라 통사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2ㄷ)의 정도 표시라는 의미 기능과는 일차적으로 무관하다.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정도부사는 화자의 주관을 표현하는 데 자주 동원되고 강조 등의 표현 효과를 가지는데,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도표현 역시 의미적으로 정도부사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도표현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도부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표현들의 통사·의미적 행동을 폭넓게 관찰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모두의 말뭉치 - 구어 말뭉치》를 대상 자료로 삼고자 한다. 《모두의 말뭉치 - 구어 말뭉치》는 그 규모가 약 18억 어절로 언중들의 언어 사용 사례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또한, 같은 구어라고 해도 문어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드라마나 뉴스와 같은 담화부터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구어적 성격이 더욱 강한 예능 프로그램의 담화 등 다양한 사용역(register)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어 말뭉치 내적으로는 사용역 상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선행 연구

상술한 것과 같이, 정도를 표시하는 언어 형식에 대한 연구는 정도부사를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다. 한국어 연구에서 정도부사가 아닌 언어 형식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석규(1987)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도가 표시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도 어찌말(정도부사어)'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정도 어찌말'은 "둘 이상의 어휘가 모여서 이루어진 구절(phrase)이 강화/약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석규 1987: 24). 그런데 '정도 어찌말'이 언급된 것은 이것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이 논의에서는 '정도 어찌말'과 전형적인 정도부사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정도어 수식 방법이 더욱 구체적이라는 점과 따라서 강화어로서의 공통의미보다 개별의미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강화어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가 쓰이는 상황이나 화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때마다 무한한 수의 강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석규1987: 24)

즉, '정도 어찌말'은 고정적이지 않은 형식이 정도 표시의 의미 이외에 다른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데다가, 다양한 어휘소와 문법소가 결합하여 생산적으로 나타나므로 정도부사와는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달리 바라보면, '무한한 수의 강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도 부사어가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정도 부사어가 특정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면, 그 통사구조를 구성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도 어찌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단어 차원의 정도부사보다 더 큰 문법단위의 정도표현을 설정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의 부사어를 망라한 김혜영(2019)에서도 드러난다. 정도 부사어를 설정함은 물론 정도부사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

다고 보았다. 또한 정도부사를 분류할 때와 같이, 그 정도 표시 방식에 따라서 다소(level), 최대/최소(maximum/minimum), 정도의 차이(distinction of degree), 정도의 일치(agreement of degree)로 정도 부사어를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풍부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정도표현 역시 정도부사와 마찬가지로 피수식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 정도부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현대 한국어의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정도부사의 목록을 꾸리고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들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이다. 이 유형의 연구에는 최현배(1937), 정철주(1982), 이석규(1987), 서상규(1991), 최홍열(2005), 홍사만(2002b), 장은화(2019) 등이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정도부사의 목록과 분류 기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정도부사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기준점 유무, 대상 평가, 수량 표시 등의 공통된 하위 항목이 몇몇 관찰된다.

둘째는 정도부사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이다. 안주호(2003), 박동근(2007), 임유종(2010), 고혜원(2011, 2015), 한길(2012), 김송희(2017)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도부사의 공기관계를 살피거나 둘 이상 항목의 용법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개념을 바탕으로 정도부사가 동반하는 양태적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두 가지 항목에 집중함으로써 수많은 정도부사 사이의 세밀한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정도부사의 행동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충우(1986), 조유미(2009)와 같은 논의는 정도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통사적 현상을 집중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도부사의 화용론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연구이다. 김혜영·강범모(2010), 배진영(2012), 이유라(2021), 이재섭(2021) 등이 여기 속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발화자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담화의 종류(사용역) 등 정도부사가 사용되는 상황 맥락이나 담화 맥락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정도부사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주로 큰 규모의 말뭉치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를 통해 정도부사 사용의 경향을 확인해 주었다.

수식어의 일종인 정도부사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는, 정도부사가 수식하는 대상, 즉 서술어를 함께 살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정도부사의 공기관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었다. 정도부사와 공기하는 모든 서술어의 공통점은 [+정도성] 자질을 지니고 있어 척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도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도어(degree words)에 대한 연구는 정도표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어에 대한 연구로 흔히 언급되는 것에는 Bolinger(1972)가 있는데, Bolinger(1972)에서는 영어의 형용사 외에도 동사나 명사와 같은 품사 역시 정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동사, 명사가 [+정도성]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강화어(intensifier)[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어를 대상으로도 정도어의 체계를 마련하고 그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손춘섭(2000)이다. 손춘섭(2000)에서는 정도어를 그 형성 방식을 바탕으로 4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품사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역시 Bolinger(1972)와 마찬가지로 정도어 여부가 품사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한국어의 정도부사에 대당되는 개념. 정도부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정의나 분류, 쓰임이 유사하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정도표현이란 무엇이며, 정도표현을 설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논할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도를 표시하는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는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여 2.1.에서는 우선 논의를 위해 기본적인 개념인 '정도성', '정도어', '정도 표시'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이후 2.2에서는 정도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간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진 정도부사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도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정도부사가 보이는 통사적·의미적 특성이 정도표현에서도 다수 발견된다면, 이는 정도를 표시하는 언어 표현을 어휘적 차원에서 확장하여 연구하는 것의 효용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도부사 논의에서 공기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만큼, 정도표현에 대해서도 그 공기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에서는 공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척도 의미론(scale semantics)'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정도표현과 관련된 척도 의미론의 핵심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활용하여 척도구조(scale structure)의 개념을 밝히고 그 하위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각 정도표현의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통사·의미적 특징과 더불어 각 정도표현의 기본적인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본다. 2,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척도의미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정리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2. 기본 논의

2.1. 정도성, 정도어, 정도 표시

이 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도성, 정도어, 정도 표시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한다. 기존의 정도부사 논의나 정도어 논의에서는 정도어와 정도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이 달랐다(손남익 1995, 이승문 2000, 손춘섭 2001, 홍사만 2002b 등 참고). 이는 정도부사와 공기어 중 어느 쪽에 정도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부사 연구의 주된 쟁점과도 관련이 깊다.[3)]

신지연(2002:73)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정도성'이 두 가지 성질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이름이 같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정도부사의 '정도성'과 공기어의 '정도성'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수식어'의 '정도성'과 '수식어'의 '정도성'을 아래와 같이 '정도성1', '정도성2'로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 정도성1: 정도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성질
- 정도성2: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로 쓰일 수 있는 성질

'정도성1'은 정도의 범위, 즉 척도를 지닐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키며, '정도성2'는 정도를 나타내는, 즉 척도에서의 위치나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는 '부자', '크다', '먹다'[4)] 등의 어휘 부류가 지닌 성질이고, 후자는 '너무', '매우,' '좀' 등의 어휘 부류가 지닌 성질이다. '정도성'이라는 단어로부터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는

---

3) 손춘섭(2001)은 정도부사의 피수식어가 [정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데 반해 손남익(1995), 이승문(2000) 등은 피수식어는 [상태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도부사가 [정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4) '먹다'와 같은 동사의 정도성은 그것의 어휘적 상적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구조'와 관련이 깊다. 2.3. 참조.

‘정도성2’보다는 ‘정도성1’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정도성1’만을 정도성으로 보기로 한다. 한편 ‘정도성2’에 대응되는 개념은 본고에서 정도 표시로 불러 구별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도성을 지닌 어휘는 한데 일컬어 정도어라고 부르기로 한다.[5)]

2.2. 정도표현과 정도부사

한국어에서 정도성 자질을 구체화, 또는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언어 요소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정도부사이다. 본고에서는 여기서 시선을 돌려 정도부사와 비슷한 통사·의미적 행동을 보이는 구성들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는 정도 표시를 외현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와 그 관심사가 유사하다. 이 절에서는 풍부하게 축적된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정도표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정도표현을 정의하고, 정도부사와 정도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2.2.1. 정도표현의 개념

정도표현은 자칫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해당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정도부사나, 본고의 관심사인 구성 차원의 표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극강의 가벼움을 자랑하는 신제품 랩탑이 출시되었습니다.
ㄴ. 최근에 막 시작한 방송 있잖아, 나는 그거 핵꿀잼이더라.

5) 손춘섭(2000) 참고.

(1)은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정도를 표시하는 예를 보인 것이다. (1ㄱ)의 경우 정도어 어근 '강(强)'에 '매우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접두사 '극(極)-'이 결합하여 '강한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고, (1ㄴ)의 경우 신어에서 접두사 '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핵'이 결합하여 '재미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단어 형성 차원에서 정도를 표시하는 표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도표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정도표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구 이상의 단위로서 발화시에 단발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굳어진 표현 중에도 정도표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한다.

(2) ㄱ. <u>불 속에라도 뛰어들 만큼</u> (이석규 1987: 17)
ㄴ. <u>온 정성을 다하여</u> (이석규 1987: 17)
ㄷ. 시험지만 <u>뚫어져라</u> 쳐다보았다.

(2)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각각 '피수식어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휘적 강도가 높은 단어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2ㄱ)은 '뛰어들다' 외에도 동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큼'을 사용하여 정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특정한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2ㄴ)은 '다하다' 외에도 '온'을 통해 '정성'을 수식함으로써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2ㄷ)의 경우 '뚫어지다'라는 동사를 어미 '-아/어라'와 결합함으로써 그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도를 나타내는 '-아/어라'는 결합하는 용언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관심과는 다르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도표현이라는 술어 안에는 그것의 문법적 범주에 관련된 내용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선 (1)과 (2) 모두 정도표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 대상은 따라서 후술할 내용에서는 광의의 정도표현을 앞서 제시한 모든 표현을 아우를 수 있는 술어로, 협의의 정도표현은 본고의 연구대상과 같은 속성을 모두

공유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술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 항목을 '-다 못해',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 '한 X 하-'로 한정하였으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정도표현'은 협의의 정도표현 중에서도 연구 대상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광의의 정도표현: 정도어의 구체적인 정도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정도표현. 접두사, 정도부사, 정도부사어, 관용표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협의의 정도표현: 둘 이상의 문법소와 어휘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정도어의 구체적인 정도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표현.

2.2.2. 정도표현과 정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표현을 정도부사에 견주어 보는 것은, 그간 이루어져 온 정도부사에 대한 연구를 정도표현에 적용해도 될 당위성을 만들어줄 것이다. 정도표현과 정도부사는 의미적·화용적 특면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정도표현과 정도부사는 모두 일차적인 의미로서 '정도 표시'를 전달한다.

(3) ㄱ. 국제 경제가 <u>매우</u> 위축되어 있습니다.
ㄴ. 어제보다 어깨를 움직이기가 <u>훨씬</u> 편해졌다.
ㄷ. 이 셔츠는 내가 입기에는 <u>좀</u> 작다.

(4) ㄱ. 면접을 보는데 자꾸 내 외모를 지적하니 언짢다 못해 불쾌했다.
ㄴ. 벌레가 아무리 커도 너를 잡아먹지는 못한다.
ㄷ. 지훈이의 어릴 때 사진을 보니 이때부터 한 성격 했던 것 같다.

(3)은 정도부사를 활용하여 정도 표시를 한 예이고, (4)는 정도표현을 활용하여 정도 표시를 한 예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도 표시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3)의 경우, (3ㄱ)과 (3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도어의 척도에서 높은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부사도 존재하고, 높지 않은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부사도 존재한다. 한편, (4)의 정도표현의 경우, 정도어의 척도에서 높은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표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화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도부사와 정도표현은 매우 유사하게 행동한다. 정도 표시의 의미 기능이 '강조'라는 표현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강조법은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박동근 2007: 132)인데, 실제로 언중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 욕구를 정도부사나 정도표현을 통해 실현한다.

(5) ㄱ. 강아지가 말도 잘 듣고 너무 너무 예쁘다.
ㄴ. 로맨스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감성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합니다.
(SBRW1900001860.1.1.351)

정도부사는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 강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만, (5ㄱ)과 같이 정도부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면 강조의 효과가 더 크다. 또 (5ㄴ)과 같은 정도표현을 사용하면 유사한 의미의 정도어가 거듭 등장하게 되면서 강조의 효과가 청자에게 잘 전달된다.

한편, 정도부사와 정도표현은 그 통사적 특징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달리 말하면, 정도부사는 정도어와의 문법적 관계가 수식어(정도부사)와 피수식어(용언 또는 '명사+이다')로 고정되어 있지만, 정도표현은 그렇지 않다.

(6) ㄱ.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는 키가 큰 편이다.
ㄴ. 지훈이의 어릴 때 사진을 보니 이 때부터 한 성격 했던 것 같다.

정도표현의 경우 (6ㄱ)처럼 정도어가 관형어가 되어 구성 내부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6ㄴ)의 경우처럼 정도어 명사만이 구성 내부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표시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정도표현은 정도부사와 달리 둘 이상의 문법소나 어휘소가 결합한 일종의 구성이기 때문에, 정도어와의 결합 양상이 정도부사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 양상의 차이는, 정도부사와 정도표현이 정도를 표시하는 구체적 양상의 차이와도 연결되는 듯하다.

(7) ㄱ. 김 선생님은 너무 착하고 다정하시다.
ㄴ. 옷을 얇게 입었더니 서늘하다 못해 으스스하다.
ㄷ. 준수는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노래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7ㄱ)의 경우 '너무'는 후행하는 서술어 '착하다'와 '다정하다'를 모두 수식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착하다'와 '다정하다'의 개별적인 척도에 각각 정도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너무 착하다'와 '너무 다정하다'가 연결어미 '-고'를 통해 접속되면서, 반복되는 '너무'가 생략된 것이다.

반면 (7ㄴ)의 경우, '-다 못해'의 앞뒤에 나타난 '서늘하다'와 '으스스하다'는 '온도'와 관련된 하나의 척도를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 '-다 못해'의 경우 정도부사와 달리 오히려 둘 이상의 정도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ㄷ)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가 (7ㄴ)처럼 하나의 척도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아/어도' 구성을 통한 정도 표시가 후행절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도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척도의미론(scalar semantics)

정도부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그것이 수식하는 정도어와의 공기관계를 살피는 방식으로 정도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관찰한다(이충우 1986, 안주호 2003, 고혜원 2011 등).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어로서 부사의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정도표현 역시 '정도'의 의미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하는 정도를 지닌 정도어와의 공기관계를 살피면 정도표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형식의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척도의미론(scalar semantics)의 몇 가지 개념을 활용하려고 한다. 언어학적 척도(linguistic scale)이란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가리킨다(천현진 2004: 6). 또 언어학적 척도는 정보의 정도 또는 의미론적 강도에 따라 직선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동일한 문법적 범주의 대조적 표현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척도의미론은 이러한 언어학적 척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의미 기술을 시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척도의미론의 접근법을 간단히 소개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척도구조(scalar structure)와 그 인접 개념을 설명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정도어가 어떤 척도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표현은 정도어가 지닌 척도에 어떤 방식으로 정도를 표시하고 조작을 가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2.3.1. 척도의미론의 접근법

척도의미론은 형용사의 정도성(gradability)이나 동사의 종결성(telicity), 양태 표현의 정도성 등에 주목하는 형식의미론의 한 영역이다. 척도의미론 역시 형식의미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에만 의존하던 언어 현

상에 포함된 정교한 논리를 보여주고자 한다(전영철 2016: 12-13).

척도의미론에서는 다양한 언어 현상의 진리치에 대하여 척도적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의 의미론에서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중요시되었다면, 척도의미론에서는 퍼지 논리(fuzzy logic)[6]를 바탕으로 어떤 언어 현상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값의 집합을 하나의 척도로 두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의 진리치는 〈완전히 거짓, 약간 거짓, … , 약간 참, 완전히 참〉과 같은 척도를 지녀 무한한 정돗값(degree value)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척도의미론에서는 이를 [0, 1] 사이의 값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다.[7]

척도의미론에서는 그러면서도 진리치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과의 조화를 꾀하는데, 이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문턱정돗값(threshold value)'이다. 문턱정돗값이란 무한한 진리치의 집합에서 어떤 명제의 진리치를 참이라고 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정돗값을 가리킨다. 만약 어떤 명제 내용의 진리치가 문턱정돗값 이상을 나타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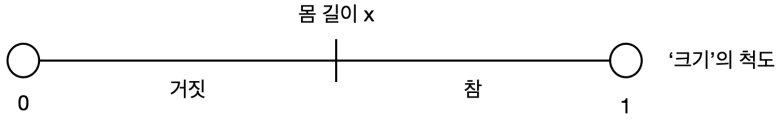
예를 들어, '고양이가 크다.'라는 문장에서 '크다'라는 형용사는 무한한 정돗값을 지닌다. 그런데 '크다'라는 성질로 서술되는 주체가 '고양이'이므로, '고양이가 크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의 정돗값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몸 길이 x'라고 한다면, '몸 길이 x'가 바로 문턱정돗값이 된다.

이제 설정된 문턱 정돗값과 실제의 정돗값을 비교하여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결정할 수 있다. '몸 길이가 x'이상인 고양이에 대해 '고양이가 크다.'는 명제는 참이지만, x 미만인 고양이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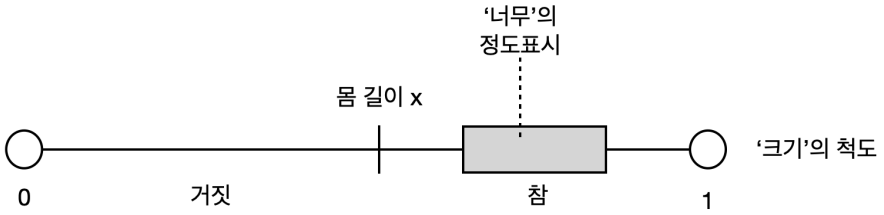
6) 퍼지 논리(fuzzy logic)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를 참과 거짓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고유한 값으로 인정하는 다치적 논리를 말한다.

7) 이때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완전히 거짓'인 진리치부터 '완전히 참'인 진리치 사이에 무한한 값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고양이가 크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또한, 척도의미론에서는 정도 한정사(degree modifier)[8]가 구체적인 정돗값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너무** 크다.'와 같은 문장에서 '너무'는 몸 길이가 x 이상인 고양이 중에서도 x를 훨씬 상회하는 몸 길이를 가진 고양이에 대한 설명일 때 참이 된다. 이를 역시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고양이가 너무 크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도부사 '너무'는 정도어 '크다'를 수식하여, 척도에서 회색 상자와 같이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정도를 구체화한다.

척도의미론에서는 다양한 계산식을 활용하여 정도어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까지 나아간다. 본고의 목적은 각 정도표현의 의미 기능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에 있으므로, 척도의미론의 수학적 접근은 시도하지 않고, 척도구조에 기반한 도식을 바탕으로 정도표현의 의미와 정도어에의 작용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8) 광의의 정도표현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기하는 정도어의 구체적인 정도의 범위나 위치를 한정하는 언어 요소를 가리킨다.

2.3.2. 유계성(boundedness)

유계성(boundedness)은 명사의 지시적 한계(referential limit)가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의미적 특성인데, Frawley(1992)에서는 Langacker(1987a, 1987b)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어 명사의 유계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어의 경우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을 유계성과 대응시킬 수 있다. 복수 표지 '-s'나 부정관사 'a'와 결합할 수 있는 가산 명사는 그것이 지시하는 개체의 공간적·개념적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유계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s'나 'a'와 결합할 수 없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는 유계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영어 명사의 행동을 볼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사의 경우 유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적 속성으로 종결성(telicity)이 꼽힌다(Paradis 2001). 동작상 연구의 선구자격인 Vendler(1967), Dowty(1979) 등에서 제시한 바를 참고하여 우선 사건의 유형에 상태(state), 과정(process), 이행(transition)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다시 사건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사건과 복합사건으로 나누었다. 단일사건은 상태와 과정, 복합사건은 이행으로 분류된다. 이때 이행의 경우 주어의 행위자성(agency)에 따라 다시 달성(achievement)과 완성(accomplishment)으로 나뉜다. 상태 유형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한 점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건이다. 과정 유형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속되는, 선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사건이다. 이행 유형의 사건은 두 개의 하위 사건(subevent)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정과 결과 상태가 그것이다. 이행 유형의 사건은 이전 상태에 있던 것이 과정을 통해 결과 상태로 변화하는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하위사건 중 결과 상태에 중심을 둔 사건은 달성(achievement), 과정에 중심을 둔 사건은 완성(accomplishment) 사건으로 본다(Pustejovsky 1991: 34-36). 이들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순 사건(simple event)		복합 사건(complex event)	
상태(state)	과정(process)	이행(transition)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

[표 1] 사건 유형과 사건 구조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 용언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8) ㄱ. 영수가 아프다.
ㄱ'. 영수가 며칠째 아프다.
ㄴ. 민지가 달린다.
ㄴ'. 민지가 급식실을 향해 달린다.
ㄷ. 할아버지는 한적한 시골에 집을 지었다.
ㄹ. 할아버지가 아끼던 화초가 죽었다.

형용사 '아프다'는 (8ㄱ)에서처럼 특정 시간적 지점에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아프다'가 나타내는 상태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8ㄱ')과 비교하여 보면 선과 같은 범위보다는 점과 같은 특정 시점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8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며칠째'와 같이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결합되면 '아프다'는 일정한 시간적 범위동안 지속되는 과정 동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 또, '*아파라'와 같이 명령형 어미와 결합한 것이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아프다'는 상태(state) 유형에 해당하는 술어라고 할 수 있다.

(8ㄴ)에 나타난 동사 '달리다'의 경우, '달리는' 행위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의미가 '달리다'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8ㄴ)에서 우리는 '민지'라는 행위주가 '달리다'가 나타내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이것을 언제 시작했는지, 또 언제까지 지속하고 언제 멈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정보는 (8ㄴ')의 '급식실을 향해'와 같이 착점을 명시하거나 '지금부터'와 같이 시작 시점을 명시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사어를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달리다'는 동일한 사건('달리는' 동작을 주어 '민지'가 수행함)이 특정한 시간적 범위에 걸쳐 반복되어 일어나므로 과정(process)의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술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행 유형의 술어는 (8ㄷ)의 '짓다'와 같은 완성 술어와 (8ㄹ)의 '죽다'와 같은 달성 술어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짓다'의 경우 (8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어 논항으로 행위주(agent)를 요구한다. 그리고 '집을 건축하는 과정'과 '과정의 결과로 완성된 집의 존재가 유지되는 상태'의 두 하위 사건 중 행위주와 관련이 깊은 전자의 사건이 주목받는다. 반면 '죽다'의 경우, 주어 논항으로 행위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를 취할 수 있다. 또한 ''ㄱ죽다'에서 '죽다'로의 상태 변화'와, '죽음의 결과가 유지되는 상태'라는 두 하위 사건 중, 후자의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다. 정리하자면 완성 술어와 달성 술어 모두 '과정'과 '결과 상태'라는 하위 사건을 지닌다. 이는 상태 술어나 과정 술어와는 달리 사건 내부에 종결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계적이다. 그러나 완성 술어는 과정 사건에, 달성 술어는 결과 상태 사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의 유계성에 대해 살펴보자. 동사의 유계성과 관련한 주요한 의미적 자질로 종결성(telicity)이 꼽혔다면, 형용사의 경우 그 주요한 의미적 자질로 정도성(gradability)이 꼽힌다. Paradis(2001)은 형용사가 어떤 정도 수식어(degree modifier)와 어울리는지, 또 그 형용사가 자신의 반의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형용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척도 형용사(scalar adjectives)', '극단 형용사(extreme adjectives)', '한계 형용사(limit adjectives)'가 그것이다. '척도 형용사'는 'long, good'처럼 그 형용사의 의미 자체에 척도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반의어와 정도 반의 관계를 이룬다. '극단 형용사'는 'terrible, brilliant'처럼 특정한 척도에서 가장 높거나 낮은 지점을 포함하는 범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하며, 이들 역시 자신의 반의어와 정도 반의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한계 형용사'는 'dead, true'처럼 다른 유

형의 형용사들과는 달리 척도를 세워 그 의미 작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9], 상보 반의 관계를 이루는 자신의 반의어와 함께 특정 상태나 성질의 값을 양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극단 형용사'와 '한계 형용사'는 끝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계적인 형용사이고, '척도 형용사'는 끝점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유계적이지 않은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할 척도 구조(scale structure) 개념은, 이러한 유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 형용사에 적용한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정도표현을 탐색할 때에도 유계성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한국어 명사와 영어 명사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어 명사의 경우,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와는 다르게, 한국어에서는 수 표지가 문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는 김송희(2017: 6)의 지적처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문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언어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국어 명사에는 한자어이면서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 '노력'이나 '독서'의 경우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사용되고, '위험'이나 '가난'의 경우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런 경우 '-하다'와 결합한 형태가 등장할 때에는 각각의 품사의 유계성 개념을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명사가 단독으로 정도표현과 어울린다면 각각 동사성, 형용사성 명사로 처리하여 각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계성 여부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한국어 명사에는 내적으로 수식구조를 지니는 사례 역시 드물지 않다. '미인', '부자'와 같은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앞

9) 한계 형용사는 언뜻 보면 정도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유형의 형용사가 이 논의를 비롯하여 형용사와 그 정도성에 주목하는 논의들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Paradis 2001, Rotsein & Winter 2004, Kennedy & McNally 2005 등 참고), 'gradable'이라는 술어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으로 사용된 듯하다. 어떤 단어의 어휘 의미와 관련하여 척도를 세운다는 것은 모호한 범위를 언급하거나, 셋 이상의 등급을 설정할 때 유용하다. 이를 'either A or B'인 관계에 대하여 대입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A 또는 B'라는 선택지가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역시 두 개의 등급을 매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gradable'은 다수의 등급을 지니는 것과 범위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이분법적인 선택지를 지니는 것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술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정도성의 개념은 이분법적 개념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 제시된 명사의 유계성 개념을 적용하자면 '미인'과 '부자' 모두 가산명사이므로 유계적이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표현과 공기할 때 정도표시가 이루어지는 의미는 '미인'의 '미'가 나타내는 '아름다운', '부자'의 '부'가 나타내는 '재물이 많은'이다. 즉, 이러한 명사의 경우 가산성이나 양화를 바탕으로 한 유계성보다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정도성에 기반을 둔 유계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도표현과의 공기 상황에서 정도 표시의 목표점이 되는 지점이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미'와 '부'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사 역시 정도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경우, 정도표현과 어울리더라도 동사의 유계성으로 지적된 종결성(telicity)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사 역시 의미에 따라 정도성의 의미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종결성만을 유일한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ustejovsky(1991)의 사건 유형 분류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행의 사건 유형을 보이는 술어들은 과정과 결과 상태라는 하위 사건을 포함한다. 그런데 '상태'는 형용사의 의미영역이기도 하므로, 정도성 차원에서 이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소영(2001: 91-106)에서도 정도부사 '매우', '거의', '아주'가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결과 상태에 대한 함의가 강하게 이루어진 것일수록 '거의'나 '아주'와의 공기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동사의 종결성 여부가 유계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정도표현에 대한 관찰이라는 목적에 다가가고자 공기어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성이 포착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 범주와 관계없이 정도성 자질을 바탕으로 유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어휘의 문법 범주보다는 어휘와 문장의 의미, 나아가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미를 바탕에 두고 유계성의 개념을 유연하게 활용할 것이다. 후술할 척도 구조(scale structure) 개념 역시 유계성을 주요한 요소로 하므로, 이는 척도 구조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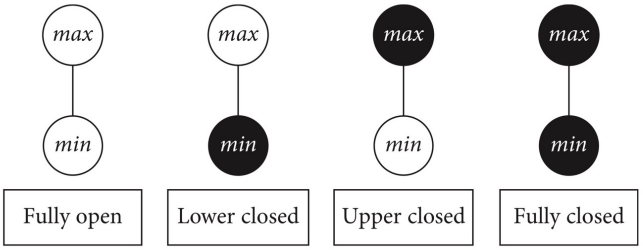
2.3.3. 척도구조(scale structure)

2.3.3.1. 정도성에 따른 형용사의 척도구조

척도구조(scale structure)란, 무한한 수의 정돗값(degree value)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내부 구조를 가리킨다(Lassiter2017:8). 즉, 앞서 언급한 척도와 문턱 정돗값, 그리고 유계성 개념이 결합한 것이 바로 척도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Rotstein & Winter(2004), Kennedy & McNally(2005), Kennedy(2007) 등에서는 형용사의 어휘 의미에 유계성 여부를 구체화하여 척도구조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끝점(endpoint)[10]이 전혀 없는 완전-개방 척도(Fully-open scale)가 있고, 최대 정돗값이 정해져 있는 상향-폐쇄 척도(Upper-closed scale)와 최소 정돗값이 정해져 있는 하향-폐쇄 척도(Lower-closed scale)가 있다. 상향-폐쇄 척도와 하향-폐쇄 척도는 하나로 묶어 부분-폐쇄 척도(Partially-closed scale)라고도 부른다. 마지막으로 최대 정돗값과 최소 정돗값이 모두 정해져 있는 완전-폐쇄 척도(Fully-closed scale)가 그것이다. 이를 Lassiter(2017: 14)에서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10) 이때의 끝점은 최솟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댓값이 될 수도 있다. 형용사에 대하여 그것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척도적 접근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수치화된) 정돗값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척도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고 척도의 모습 그 자체를 밝힘으로서 척도의 특징에 따라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는지, 어떤 언어 요소와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끝점의 존재 여부 역시 척도의 유형을 변별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유계성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끝점이 있는 것은 지시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유계적이고, 끝점이 없는 것은 지시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계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척도구조의 네 가지 유형. 왼쪽부터 완전-개방 척도, 하향-폐쇄 척도, 상향-폐쇄 척도, 완전-폐쇄 척도.

형용사의 절대성[11]과 상대성 개념도 척도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대형용사는 예외 없이 맨 왼쪽의 완전-개방 척도구조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다'의 경우 0에서 무한대로의 척도 위에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최솟값으로서의 한계점도 최댓값으로서의 한계점도 지니지 않는다. 또한 맥락에 따라 '크다'가 사용된 문장의 진릿값은 그 맥락이 요구하는 문턱정돗값에 따라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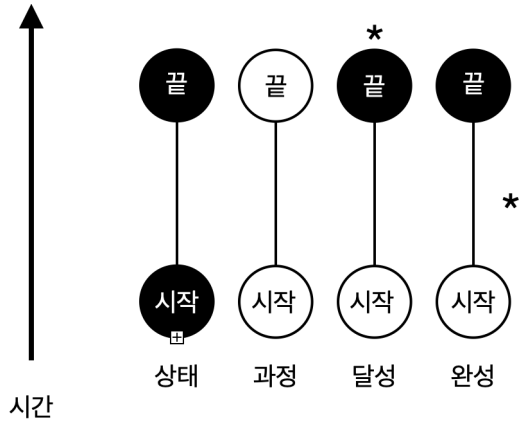
절대형용사는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분-폐쇄 또는 완전-폐쇄의 척도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영어의 'awake'는 최소 정돗값이 m이고 최대 정돗값은 없는 하향-폐쇄 척도구조를 지닌 형용사이다. 이때 m이란 0이 아닌 양의 값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기호이다. 어휘 항목의 의미에 따라 m의 값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 정돗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절대형용사는 최소 정돗값 m으로부터 무한대로의 척도 위에 있는 다양한 값을 지닐 수 있지만, 최대 정돗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2.3.3.2. 사건구조에 따른 동사의 척도구조

11) 절대형용사란 영어의 'open'처럼 어휘적 의미 자체에 최소정돗값이나 최대정돗값을 갖는 형용사이다. 'open'은 최소정돗값(문이 완전히 닫혀 있음)을 제외하면 모두 참이 된다. 한편 상대형용사는 영어의 'tall'처럼 최소정돗값이나 최대정돗값을 가지지 않으면서 문맥에 따라 문턱정돗값이 달라지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의 척도 구조를 동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2.3.2.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유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형용사와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법 범주에 따라 유계성과 주된 상호작용을 하는 의미 자질은 다를 수 있다. 동사의 유계성은 그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도표현과 동사가 공기하는 모습을 더욱 정합적으로 설명하려면 동사의 척도구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 그 종결성, 즉 동사의 상적 의미가 유계성을 따질 때의 주요한 자질이다. 그렇다면 동사가 지니고 있는 척도의 변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각 동사는 최소 정돗값, 최대 정돗값을 가지는지가 아니라, 해당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 변화·작용·행위의 내적 시간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지가 척도 구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Pustejovsky(1991)의 사건 유형 분류에 따라, 각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사의 척도구조를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12)]



[그림 4] 사건 구조를 척도구조 모형에 대응시킨 것.
왼쪽부터 상태, 과정, 달성, 완성의 사건 구조.

상태 사건은 마치 점처럼 시간적 폭이 거의 없이 존재하는 단일 사건(김송희 2017: 7)이다.[13)] 따라서 사건의 시간적 지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존재

12) 이때 *표는 각 유형의 동사가 어떤 시간적인 지점에 중점을 두는지를 의미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마치 상태 사건이 다른 사건 유형들과 동등한 수준

하며, 시간적 폭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이 명료한 편이다. 과정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시간적 폭을 두고 연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휘 의미 자체에는 그 시작점과 끝점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달성 사건과 완성 사건은 모두 과정 사건과 결과 상태 사건이라는 두 하위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작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끝점은 존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하위 사건 중 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따로 표시해 두었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척도 구조와 동사의 사건 구조를 거칠게나마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았다. 정리하자면, 형용사의 완전-개방 척도는 과정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의 사건 구조와 닮아 있고, 완전-폐쇄 척도는 상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의 사건 구조와 닮아 있다. 한편 부분-폐쇄 척도는 이행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의 사건 구조와 닮아 있다. 다만 부분-폐쇄 척도의 구조와 이행 사건의 사건구조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Pustejovsky(1991)식 분류를 따라 사건 구조를 유형화한 것은 척도구조의 네 가지 유형 중 세 가지 유형과만 대응된다는 것이다. 즉 시작점은 있지만 끝점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사건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향-폐쇄 척도에 대응될 만한 사건 구조가 없다. 또 동사의 의미 영역과 형용사의 의미 영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성 사건과 완성 사건이 같은 사건 구조를 지녀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척도구조와 같이 꽉 짜인 체계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도성과 사건 구조를 연결해 주는 유계성 개념을 통해 형용사와 동사의 의미 자질을 관찰함으로써 정도표현의 공기관계를 설명할 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으로 시간적 폭을 지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부사어 등 부가어의 결합에 따라 어휘 의미 내재적으로는 시간적 폭을 거의 지니지 않는 상태 사건도 시간적 폭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과정, 달성, 완성 사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5에서는 모든 유형의 사건이 지니는 시간의 폭이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시작점과 끝점의 존재 유무를 강조하고자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그린 것일 뿐, 실제로 모든 유형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의 폭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2.3.3.3. 문맥에 따른 척도구조

앞선 2.3.3.1, 2.3.3.2에서 제시한 척도구조 논의는 맥락으로부터 간취되는 의미를 제외하고, 해당 어휘가 내재적으로 지니는 정도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Lassiter(2017: 41)에서는 내재적인 어휘 의미 자질의 하나인 척도의 구조를 '내재적 유계성(internal boundedness)'에 따른 것으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척도의 구조를 '우연적 유계성(accidental boundedness)'에 따른 것으로 구별하였다.[14)]

(9) ㄱ. This glass is half full.
ㄴ. *Sam is half tall.
ㄷ. Sam is half as tall as the tallest person around.

Lassiter(2017: 41)

영어에서 (9ㄱ)의 'full'과 같은 형용사는 그 척도가 정도의 최댓값을 포함하는, 상향-폐쇄의 양상을 보인다. 반면, (9ㄴ, ㄷ)의 'tall'과 같은 형용사는 그 척도가 무한하게 뻗어갈 뿐 구체적인 최댓값을 지니지 않는, 완전-개방의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9ㄴ)처럼 맥락 정보 없이, 부분-폐쇄 척도와 어울려 사용되는 'half'와 같은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9ㄷ)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the tallest person around'를 통해 정도의 최댓값이 맥락에서 설정되면, 'tall'이 어휘 의미 내재적으로는 완전-개방의 척도를 갖더라도 이 문장에서만큼은 상향-폐쇄 척도를 가진 형용사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의 영향에 따른 유계성의 변화는 Paradis(2001: 10)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정도성과 관련하여 특

14) Lassiter(2017)의 논의는 척도구조 이론을 정교화하고 이를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형용사 'likely, probable' 등에 적용하여 양태의 정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이 논의에서 이렇게 맥락 개입 여부에 따라 척도구조를 구별한 것은 사실 어휘 항목의 척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내재적 유계성에 의한 척도구조만을 가려서 주목하기를 권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정한 해석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true, sure, sober, certain, empty’와 같이 내재적으로는 자신의 반의어와 함께 두 개 등급만을 지니는 유계적 형용사라고 하더라도, ‘quite, fairly, perfectly’와 같은 정도 한정사(degree modifier)의 수식을 받으면 그 사이에 다양한 정돗값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유계성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평가적(evaluative) 형용사 말고도, ‘Swedish’와 같이 범주적(criterial)인 성질을 지녀서, 일반적으로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기대하며 이해하게 되는 형용사 역시도 맥락에 따라 ‘terribly, very, extremely’와 같은 부사의 수식을 통해 [+정도성] 자질을 지니는 형용사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사의 경우, Pustejovsky(1991)의 견해를 따라 부가어의 의미에 따라 그 사건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2.3.2.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 역시 각 동사가 지니고 있던 내재적 사건 구조가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언어 외적인 맥락을 통해서도 어휘 항목이 이러한 우연적 유계성에 기반하여 척도구조에 변화가 생기거나, 내재적으로는 정도성을 지니지 않던 어휘 항목이 정도성을 지니게 되는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한 합성적 의미만 고려하였을 때는 수용성이 떨어지지만, 언어 외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어휘 의미 내재적인 유계성에 기반한 척도 구조에 대한 관찰과 우연적인 유계성에 기반한 척도구조에 대한 관찰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내재적 유계성에 기반한 척도구조는 ‘내재적 척도구조’, 우연적 유계성에 기반한 척도구조는 ‘우연적 척도구조’라 부르기로 한다.

3. 정도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

이 장에서는 정도표현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살핌으로써 정도표현이 한국어 문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의 정도표현은 그 내부에 어휘소와 문법소가 둘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도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징은 그 정도표현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정도표현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먼저 고찰하는 데에서 정도표현 전체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 관찰을 시작하려 한다.

한편, 정도표현으로서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의 합성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합성적 의미의 용례와 정도표현으로서의 용례를 함께 살핌으로써 정도표현으로서의 용법을 변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정도표현은 그 자체로는 정도를 표시하지 못하는 복수의 언어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정도표시의 범위 밖에 있는 다른 의미를 함께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도표현이 정도표시와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 이 역시 함께 살피려고 한다.

3.1. '-다 못해'

3.1.1. '-다 못해'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3.1.1.1. 연결어미 '-다(가)'

'-다 못해'에서 나타나는 '-다'는 연결어미 '-다가'가 줄어든 형태이다.[15] '-다 못해'에 대한 선행연구인 진가리(2014)와 최정진(2015)에서도 '-다'의 정체를 연결어미 '-다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결어미 '-다가'는 전형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

15) 이를 나타내기 위해 3.1.1.1.의 제목을 '-다(가)'로 표기하였다.

다가'의 기본 의미를 [중단]으로 이해한 것은 최현배(1956:29)에서 이를 '그침꼴 씨끝'으로 언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가'가 [중단]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가'의 의미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 '-다가'의 기본 의미로 [전환]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전환'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김진수(1987)에서의 일인 듯하다. 윤평현(2005)도 '-다가'의 기본 의미를 [전환]으로 이해한다. 후행절[16]의 사태가 선행절 사태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준기(2010)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세분화하여, 선행절 사태의 진행 여부에 따라 이를 크게 [중단전환]과 [지속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중단전환]은 선행절의 사태가 중단된 뒤에 후행절의 사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며, [지속전환]은 선행절의 사태가 지속되는 중에 후행절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다가'의 기본 의미를 [전환]으로 이해한다.[17]

(1) ㄱ. 길을 <u>걷다가</u> 꽃을 보았다.
ㄴ. 표준어를 <u>쓰다가</u> 방언을 써 보니 더욱 흥미로워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SARW1800000882.1.1.32-33)

(1ㄱ)의 선행절 사태인 '길을 걷'는 것은 특정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동작인데, 발을 사용하여 걷는 것과 눈을 사용하여 보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후행절의 사태 발생이 선행절 사태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발생 시점은 시간

16) 복문을 이루는 절은 복문의 유형에 따라 내포절-모절, 종속절-주절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지만, 정도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이 어떤 유형의 복문에 속하는지는 본고의 관심 밖에 있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연결어미 앞의 절은 선행절, 연결어미에 뒤따르는 절은 후행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17) 연결어미가 보편적으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듯이, '-다가' 역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속], [원인], [반복], [조건], [계기] 등이 '-다가'의 의미 기능으로 언급된 바 있다(이기갑 2004, 김준기 2010 이재성 2017 참고). [중단]의 의미가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것은 '-다가'와 결합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다가'의 다양한 의미 중 일부가 활성화되고 다른 일부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적으로 매우 가깝다. 이를 고려할 때, (1ㄱ)의 의미는, 선행절의 '걷'는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걷'는 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준기(2010)의 개념을 빌리자면 [지속전환]으로도, [중단전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인 것이다.

한편 (1ㄴ)의 경우, '표준어를 쓰'는 선행절의 사태와 '방언을 쓰'는 후행절의 사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1ㄱ)과 달리 두 사태가 같은 신체기관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도 있지만, 맥락상 '방언을 쓰'는 후행절의 사태는 보조동사 '보다'가 후행하고 있으므로 (1ㄴ)을 발화한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처음으로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1ㄴ)의 의미는 선행절의 '표준어를 쓰'는 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후행절의 '방언을 쓰'는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김준기(2010)의 개념을 빌리자면 [중단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결어미 '-다(가)'의 대표적인 통사적 특징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거나 서술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고 서술어(서술구)가 달라야 하고[18],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면 서술어(서술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재성 2017: 114).

(2) ㄱ. 불빛이 <u>가까워졌다가</u> 다시 점점 멀어졌다.
ㄴ. 아이가 우유를 <u>마시다가</u> 잠이 들었다.
ㄷ. 영호와 철이가 고시를 <u>준비하다가</u> 영호가 먼저 포기했다.
ㄹ. 돌이가 운전을 <u>하다가</u> 돌아올 때에는 순이가 운전을 했다.
(이상 윤평현 2005: 74-77)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선·후행절의 주어 또는 서술어의 엄밀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제약은 아니다. (2ㄱ)의 경우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불빛'으로 동일하고 서술어는 달라서 제약을 지키는 사례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제약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2ㄴ, ㄷ) 역시 적격한 문장이기 때

18) 동일 주어 제약

문이다.

먼저 (2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선행절의 주어가 '아이'이고 후행절의 주어가 '잠'이므로 동일 주어 제약을 어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후행절은 '아이가 잠이 들었다'라는 이중주어문이므로 후행절의 주어는 '잠'이 아니라 '아이'이다. 따라서 (2ㄴ)에서도 동일 주어 제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2ㄷ)처럼 선행절에서 복수의 주어를 지니는 경우에는 후행절에 그 일부만 제시되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한편 (2ㄹ)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는 같은 문장으로 역시 적격한 문장이다.

그밖에도 '-다(가)'의 주요한 통사적 특징으로는, 결합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가 '-았/었-'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있다. 그런데 '-았/었-' 역시 언제나 '-다(가)'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에 '-았/었-'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본고의 관심인 '-다 못해'의 경우 '-다(가)'에 '-았/었-'이 결합하여 사용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19]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3.1.1.2. 부정문을 만드는 '못하-'

'못하-'는 전형적으로 '-지 못하-'의 보조 용언 구성으로 부정문을 이루는데, 그 선행 용언으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선행 용언의 품사에 따라 '못하-'의 의미는 다르게 포착된다.

(3) ㄱ. 다리가 아파서 결승점까지 뛰지 못했다.
ㄴ. 창문을 한참 닦았는데도 깨끗하지 못하다.

'못하-'는 전형적으로 동사와 어울리는데, '못하-'가 동사와 어울릴 때에는 불능(不能)의 의미를 나타낸다. (3ㄱ)에서는 '못하-'의 선행 용언으로

19)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검색 결과 0건.

‘뛰-’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뛰지 못하-’의 의미는 외부 상황이나 화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 사태를 실현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3ㄱ)의 경우 화자가 충분한 달리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아프다’는 선행절의 내용을 통해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결승점까지 뛰’는 사태를 실현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한편 (3ㄴ)처럼 ‘못하-’가 형용사와 어울릴 때에는, 선행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나 성질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불급(不及)의 의미를 나타낸다. (3ㄴ)의 경우 ‘창문을 한참 닦’는 선행절 사태를 통해 창문이 깨끗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생각하는 깨끗한 상태와 비교하여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3.1.2. 합성적 의미의 ‘-다 못하-’와 정도표현 ‘-다 못해’

실제 문장에서 관찰되는 ‘-다 못해’는 앞서 살펴본 연결어미 ‘-다(가)’와 부정의 ‘못하-’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작용하는 용법과 그렇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되는 듯하다(진가리 2014, 최정진 2015 참고).[20]

(4) ㄱ. 아버지의 성화를 <u>참다 못해</u> 마음속에 쌓아 둔 불만을 터뜨렸다.
ㄴ. 아버지의 성화를 <u>참지 못해</u> 마음속에 쌓아 둔 불만을 터뜨렸다.

(4ㄱ)에서는 ‘-다 못하-’를 통해 선행절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멈추고,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중단]과 [전환]이라는 ‘-다(가)’의 의미가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20)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합성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다 못하-’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못해’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는 이들 구성과 결합 가능한 어미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다 못하-’는 ‘-아/어서’, ‘-고’, ‘-(으)ㄴ’ 등의 어미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 못해’의 경우는 ‘-아/어서’가 결합한 ‘-다 못해서’를 제외하고는 ‘-다 못해’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 못해’의 어미 결합 제약에 대하여는 3.1.3.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ㄱ)이 선·후행절의 용언으로 모두 동사를 취하기 때문에 '-다(가)'의 의미 또한 보존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ㄴ)처럼 '-다 못하-'가 '-지 못하-' 구성으로 쉽게 대치된다는 점에서, '못하-'가 지닌 '불능(不能)'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진가리 2014: 233). 그리고 (4ㄱ)에서 '-다(가)'의 의미 중 [지속전환]이 아니라 [중단전환]이 선택되는 것은 '못하-'가 '불능(不能)'의 의미를 통해 선행절을 부정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어휘 내적으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참다'를 부정함으로써 [중단]의 의미가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4ㄱ)은 '-다(가)'와 '못하-'의 의미가 합성적으로 작용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5) ㄱ. 아침 공기는 이제 <u>선선하다 못해</u> 조금 쌀쌀하네요.
(SBRW1900000187.1.1.8)
ㄴ. *아침 공기는 이제 <u>선선하지 못해</u> 조금 쌀쌀하네요.

그런데 (5ㄱ)을 보면, 선행절의 용언이 형용사이므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가 보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가)'는 후행절의 사태 발생 시점이나 선행절 사태의 지속 여부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데, '선선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휘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5ㄱ)의 밑줄 친 부분이 (4ㄱ)과 같이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못하-'가 '불급(不及)'의 의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5ㄱ)의 '-다(가)'를 '-지'로 바꾼 (5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ㄴ)과는 달리 예문의 수용성과 문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못하-'의 의미 역시 보존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ㄱ)과 (5ㄱ)의 '-다 못하-'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선하다'와 '쌀쌀하다'는 모두 온도와 관련하여 [+정도성] 자질을 지니는 형용사로, 모두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다만 '선선하다'보다 '쌀쌀하다'가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어휘적 강도는 '선선하다 〈 쌀쌀하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ㄱ)의 경우

‘-다(가)’의 [전환]의 의미, ‘못하-’의 ‘불능(不能)’ 또는 ‘불급(不及)’의 의미 중 무엇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굳어진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진가리 2014, 최정진 2015). 또한 [+정도성]을 지니는 용언과 어울려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 못해’를 정도표현의 일부로 보고 그 통사적 특징과 의미에 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다 못해’가 굳어진 표현이라면,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다 못하-’로부터 정도 표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못해’가 정도를 표시하게 된 경로를 추론해 보자.

말뭉치에서는 ‘-다 못해’[21]가 포함된 문장이 총 1672건 검색되는데, ‘-다 못해’와 선행하는 용언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4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검색 건 수
하다못해	712
보다 못해	209
견디다 못해	149
참다 못해	130

[표 1] ‘-다 못해’의 검색 결과 상위 항목 검색 건 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못해’[22]는 ‘하다못해’[23]를 제외하면 ‘보다’, ‘견디다’, ‘참다’라는 세 가지 동사와 가장 많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

21)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다 못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검색 당시 검색어의 형태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22)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다 못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검색 당시 검색어의 형태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23) ‘하다못해’는 정도표현 ‘-다 못해’가 더욱 굳어진 표현으로, ‘제일 나쁜 경우라고 하더라도(《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지닌다.

ⅰ)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등장하겠지?

ⅱ) 하다못해 동정표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ⅰ)과 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못해’는 후행하는 절 전체를 수식하면서 그 절이 화자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사태임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하다못해’는 정도표현보다는 일종의 양태부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고의 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수 있다.[24]

(6) ㄱ. 보다 못해 이제는 친구가 나서네요. SBRW1900009134.1.1.287
ㄴ. 폭염을 견디다 못해 결국 가족하고는 떨어져 혼자 지내게 된 건데요. SBRW1900010108.1.1.543
ㄷ. 참다 못해 드디어 저도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SBRW1900006772.1.1.723

(6)은 '-다 못하-'와 가장 빈번하게 결합하는 동사가 포함된 예문을 각각 하나씩 보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6)은 '-다(가)'와 '못하-'가 합성적으로 작용하여, 선행절의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중단되고, 후행절의 행위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6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다'는 단순한 지각 행위보다는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6ㄴ)과 (6ㄷ)의 '견디다'는 행위주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현상을 유지하고자 버티는 것을, '참다'는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있더라도 이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보다', '견디다', '참다'는 선행절 이전의 발화나 상황 맥락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나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 못하-'와 결합한 '보다', '견디다', '참다'가 가리키는 행위가 지속되면,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거나 후행절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6)과 같은 발화를 접한 청자들은 일종의 함축을 얻어낼 수 있다. 먼저, 발화 속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주체에게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을 청자들은 알고 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주체가 선행절의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25] 그리고 선행절의 행위를 지속

24) 말뭉치 검색 과정에서 '-다 못해'에 선행하는 용언의 품사를 동사로 한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1>의 네 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70건 안에는 형용사와 결합한 '-다 못해'와 동사와 결합한 '-다 못해'가 섞여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성적 의미의 '-다 못해'가 '보다', '견디다', '참다'와 결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25) 선행절의 서술어가 '보다', '견디다', '참다'이므로, 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인간이 일반적으로 보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의 판단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주체는 후행절의 사태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6)과 같은 발화를 접한 청자는 발화 속 주체가 보거나,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을 때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함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축이 반복되면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를 통해 정도표현 '-다 못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화용론적 강화란 화자의 발화 속 함축을 청자가 추론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특정 구성에 대해 함축이 관습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 구성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Bybee 2010). 어떤 구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청자는 이것의 함축에 대해 추론한 결과를 적립하게 되고, 그 추론의 결과가 다시 전체 구문의 의미에 반영되는 것이다. 즉, '-다 못하-'가 자주 사용되는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할 때 청자는 이 구성 속에 정도에 대한 발화 속 주체의 판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추론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다 못하-'의 정도 표시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도표현 '-다 못해'는 [중단전환]의 '-다 못하-'가 발화될 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함축을 통해 새롭게 얻어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 사태의 의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다 못하-'와는 달리, 정도를 표시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3.1.3. '-다 못해'의 통사적 특징

'-다 못해'는 몇 가지의 통사적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다 못해'는 문말에는 나타날 수 없고 문중에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다 못해'의 어미 결합 제약과 관련이 있다.

추론이 가능하다.

(7) ㄱ. *내가 하는 음식 맛이 좋다 {못하다/못한가?} (진가리 2014: 240)
ㄴ. *그 사람은 냉정하다 {못하다/못한가?} (최정진 2015: 214)

(7ㄱ, 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못해'는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문말에 쓰이면 문법적이지 못한 문장이 된다. '-다 못해'는 '-다 못해'에 별다른 연결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사용되거나, 계기의 연결어미 '-아/어서'와 결합한다. 말뭉치 검색 결과에서도 '-아/어서' 이외의 연결어미와 결합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은 '-다 못해'가 강력한 어미 결합 제약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26] 이와 같은 특징은 진가리(2014: 24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또, '-다 못해'의 각 요소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다 못해'는 구성요소인 '-다(가)'의 동일 주어 제약은 따르는 듯하다.

(8) ㄱ.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덥다.
ㄱ'.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내가 덥다.
ㄴ. 민수는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다. (최정진 2015: 208 변형)
ㄴ'. *민수는 냉정하다 못해 철수는 비정하다.

(8ㄱ)에서는 '-다 못해'에 선행하는 용언 '따뜻하다'와 후행하는 용언 '덥다'가 공통의 주어 '날씨'를 가진다. 또, (8ㄴ)에서는 선행 용언 '냉정하다'와 후행 용언 '비정하다'가 공통의 주어 '민수'를 가진다.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진가리(2014: 242)의 지적처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8ㄱ')이나 (8ㄴ')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다른 주어를 취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이는 '-다 못해'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볼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한편 '-다가'와는 달리, '-다 못해'에서 동일 서술어 제약은 나타나지 않

26) 합성적 의미의 '-다 못하-'가 연결어미 '-아/어', '-아/어서' 외에 연결어미 '-고', 관형형 어미 '-(으)ㄴ'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도표현 '-다 못해'는 '-다 못하-'보다도 더욱 엄격한 결합 제약을 보이는 셈이다.

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가)'에서 동일 서술어 제약은 선·후행절의 동일 주어 제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된다. 그런데 '-다 못해' 구문이 일반적으로 동일 주어 제약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 서술어 제약을 지키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구성 전체가 서술어의 [+정도성] 자질과 호응하기 때문에, 사태의 발생 시점이나 지속 여부와 관련 있는 연결어미 '-다(가)'와 완전히 동일한 통사적 제약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다 못해'의 경우 그 선·후행절의 서술어로 형용사, 동사, '체언+이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기할 수 있는 서술어의 품사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이다. 다만 개별 어휘의 척도구조에 따라서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1.4. '-다 못해'의 의미적 특징

'-다 못해'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 구성을 정도 표현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진가리(2014)에서는 '-다 못해'의 용법을 '과도(過度)'로 이해하였다.

(9) 영숙이는 지금쯤 배가 <u>출출하다 못해</u> 몹시 고플 것이다.
(진가리 2014:235)

'과도(過度)'란 선행절 용언이 표현하는 정도를 지나쳐 후행절이 표현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9)를 통해 보면, 영숙이의 상태는 '출출하다'가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지나쳐 배가 '몹시 고픈' 상태일 것이라고 화자가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정진(2015)에서는 '-다 못해'의 의미를 '과급(過給)'으로 파악하였다. "'과도(過度)'가 '목적 정도가 전체 의도에 비추어 적절치 않음'을 함

의하기 때문"(최정진 2015:210)이라고 덧붙인 것을 보면, '-다 못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술어는 진가리(2014)와 달리 설정하였더라도 '-다 못해'를 '어떤 정도를 지나침'의 의미로 파악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 ㄱ. 특히 이 로맨스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아주 감성이 상당히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야 (후략) (SBRW1900001860.1.1.351)
ㄴ. 네. 뜨겁다 못해 따갑죠? (SBRW1900002059.1.1.103)
ㄷ. 저는 술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SBRW1900007661.1.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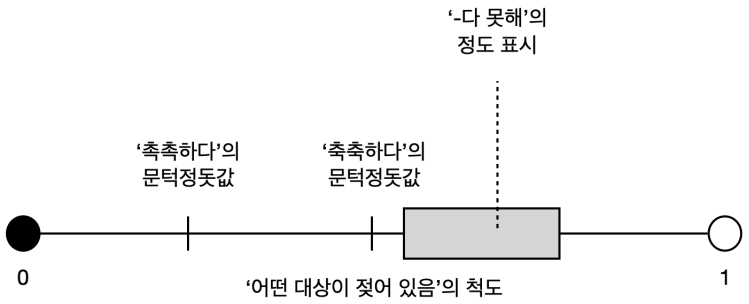
(10)은 '-다 못해'의 전형적인 용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10ㄱ~ㄷ)은 모두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어휘적 강도의 차이를 제외하면 의미가 거의 같은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10ㄱ)에서 '촉촉하다'와 '축축하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이 액체에 젖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젖어 있음'[27]의 척도를 공유한다. 이때 '촉촉하다'는 액체를 머금고 있더라도 그 양이 적다는 점에서, 다소 낮은 정도의 '젖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축축하다'는 '촉촉하다'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젖어 있음'을 의미한다.

(10ㄴ)과 (10ㄷ) 역시 선·후행 용언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10ㄴ)의 경우 '뜨겁다'와 '따갑다'는 피부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열' 또는 '온도'의 척도를 공유한다. 이때 '뜨겁다'보다 '따갑다'가 더 높은 정도의 '열' 또는 '온도'를 나타낸다. (10ㄷ)의 경우,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는 대상에 대한 '호감' 또는 '긍정적 감정'의 척도를 공유한다. 이때 '좋아하다'보다 '사랑하다'가 더 높은 정도의 '호감' 또는 '긍정적 감정'을 나타낸다.

최정진(2015)에서도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서술1'과 '서술2' 사이에는 표현 강도의 척도상에서 상대적인 강약 관계가 간취된다(2015:208)"고 하였다. '-다 못해'는 기존 연구에서 '정도를 지나침'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0)을 통해 본 것처럼, 이 구성을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주어가 선·후행절 용언이 공통으로 점유하는 척도에서 높은 정도에 해당하는 의

27) '어떤 대상이 액체에 젖어 있음'을 편의상 줄여 '젖어 있음'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미를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 못해' 구성은 '선행절 서술어의 정도가 매우 높아 후행절 서술어가 나타내는 정도에까지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10ㄱ)을 척도의미론의 접근법에 따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감성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하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Lassiter(2017)에서는 어휘적으로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은 동일한 척도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별 어휘가 서로 다른 척도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복수의 어휘가 하나의 척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10ㄱ)로부터 도출한 '젖어 있음'의 척도와 같은 경우, '촉촉하다', '축축하다', '흥건하다' 등의 형용사들이 이 척도의 특정 위치에 각각의 문턱정돗값을 지니게 될 것이다.

'촉촉하다'와 '축축하다' 중에서는 '젖어 있음'의 정도, 즉 어떤 대상에 흡수된 액체의 양의 측면에서 '촉촉하다'보다 '축축하다'가 더 큰 문턱정돗값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성이 촉촉하다 못해 축축하다'라는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젖어 있는 정도'는 '촉촉하다'라는 형용사가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축축하다'라는 형용사로 표현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축축하다'의 문턱정돗값을 상회하는 위치에 표시될 것이다. 다만 청자(또는 독자)의 주관에 따라 '-다 못해'가 표시하는 정도가 '축축하다'의 문턱정돗값을 겨우 넘기는 정도일 수도 있고, 보다 큰 차이로 문턱정돗값을 넘기는 정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다 못해' 구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심함', '정도가 높음'

의 의미는 척도함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척도함축이란 하나의 척도상에 놓이는 단어들 중, 의미론적으로 약한 표현[28]을 단언(assertion)하면 의미론적으로 강한 표현[29]을 부정하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Levinson(1983)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였다.

(11) Scalar implicatures: Given any scale of the form $\langle e_1, e_2, e_3, ..., e_n \rangle$, if speaker as asserts $A(e_2)$ the he implicates $\sim A(e_1)$, if he asserts $A(e_3)$, then he implicates $\sim A(e_2)$ and $\sim A(e_1)$, and in general, if he asserts $A(e_n)$, then he implicates $\sim(A(e_{n-1}))$, $\sim(A(e_{n-2}))$ and so on, up to $\sim(A(e_1))$ (Levinson 1983: 133).

(11') 척도 함축: $\langle e_1, e_2, e_3, ..., e_n \rangle$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모든 척도에서, 화자가 e_2를 단언하면 e_1의 부정을 함축하고, 화자가 e_3을 단언하면 e_2의 부정과 e_1의 부정을 함축하며, 일반적으로 화자가 e_n을 단언하면 e_{n-1}의 부정, e_{n-2}의 부정과 더불어 e_1의 부정까지를 모두 함축한다.

(11)에서 e_1이 의미론적으로 가장 약한 표현이고, e_n은 의미론적으로 가장 강한 표현이다. Levinson(1983: 133)에 따르면 척도에 있는 어떤 표현을 단언하면, 그보다 의미론적으로 약한 모든 표현의 부정을 함축한다.

(12) ㄱ. Some of the girls went to the shopping mall.
ㄴ. All of the girls went to the shopping mall.
ㄷ. The weather is warm.
ㄹ. The weather is hot.

위 영어의 예를 보자. (12ㄴ)이 참이면 (12ㄱ)은 참이므로 (12ㄴ)이 (12ㄱ)을 함의하지만, (12ㄴ)이 참이면 (12ㄱ)은 거짓이므로 (12ㄱ)은 (12ㄴ)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는 곧 복수의 양화사로 이루어진 척도에서 'some'은 의

28) 척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표현
29) 척도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표현

미론적으로 약한 표현이고, ‘all’은 의미론적으로 강한 표현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12ㄱ)를 발화하면 (12ㄴ)의 부정을 함축하게 된다.

한편 (12ㄷ)의 ‘warm’과 (12ㄹ)의 ‘hot’의 경우, 이들은 ‘기온’이라는 하나의 척도를 공유하는 형용사이며 정도어이다. 이때 (12ㄹ)이 참이면 (12ㄷ)은 참이므로 (12ㄹ)이 (12ㄷ)을 함의하지만[30], (12ㄷ)이 참이라고 해서 (12ㄹ)이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2ㄷ)이 (12ㄹ)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기온’을 나타내는 어휘로 이루어진 척도에서 ‘warm’은 의미론적으로 약한 표현이고, ‘hot’은 의미론적으로 강한 표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12ㄷ)을 발화하면 (12ㄹ)의 부정을 함축하게 된다.

그런데 함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는 취소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2ㄷ)을 발화하여 ‘The weather is not hot.’을 함축하게 되더라도, (12ㄷ)의 후행 발화로 ‘In fact, the weather is hot.’가 오게 되면 기존의 함축이 취소되는 것이다.

(13) ㄱ. (전략) 부동산 시장은 <u>영리하다 못해</u> 영악한 시장입니다. (SBRW1900007971.1.1.458)
ㄴ. 산천어를 잡자고 얼음 속에 뛰어드는 광경이 <u>놀랍다 못해</u> 이건 경이로운 일이다. (SBRW1900003685.1.1.537)

‘-다 못해’ 구성이 사용된 (13) 역시 각각의 발화 내에서 척도함축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ㄱ)의 경우 화자는 ‘영리하다’보다 ‘영악하다’를 의미론적으로 더 강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하다’는 ‘-다 못해’의 구성요소인 ‘못하-’ 때문에 부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의미론적으로 약한 표현인 ‘영리하다’가 참이 아니므로, 같은 척도에서 의미론적으로 강한 표현인 ‘영악하다’ 역시 거짓이라는 함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 못해’에 곧바로 ‘영악하다’가 결합하게 되면서 기존의 함축이 취소되는 것이다.

30)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warm’과 ‘hot’의 의미는 경계가 명확한 등급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hot’은 ‘warm’의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hot’이 ‘warm’을 함의할 수 있는 것이다(소상호 1998:135).

(13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미론적으로 낮은 표현인 '놀랍다'를 부정하면 의미론적으로 높은 표현인 '경이롭다'가 거짓이라는 함축이 도출된다. 그러나 '-다 못해'에 '경이롭다'가 후행하면서 기존의 함축이 취소된다.

이는 '-다 못해'의 '못하-'가 '불능(不能)'이나 '불급(不及)'이라는 기존의 의미는 잃었지만, 화용론적 층위에서 부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명제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불능'이나 '불급'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일부를 부정하는 상위언어적 부정문(metalinguistic negation)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31] 이렇게 '-다 못해'는 상위언어적 부정문의 일부로써 선행절을 통해 발생한 척도 함축을 취소하여 '정도의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렇게 '-다 못해'가 유사한 의미의 두 용언을 선·후행절로 지닌다는 사실은 이 구성이 화자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용언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촉촉하다'와 '축축하다', '뜨겁다'와 '따갑다', '선선하다'와 '서늘하다'의 경우처럼 후행절의 용언이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두 용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같은 의미 자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통의 의미 자질이 강조되는 것이다.

3.2. '아무리 -아/어도'

3.2.1. '아무리 -아/어도'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3.2.1.1. 부사 '아무리'

'아무리'는 항상 양보의 의미를 지니는 어미와 함께 나타나는 통사적 제

31) 상위언어적 부정문(metalinguistic negation)이란 Horn(1985, 1989)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부정문이 화용론적 중의성을 지님을 지적하면서 등장하였다. Horn(19985, 1989)는 부정문을 의미론적 부정문과 화용론적 부정문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의미론적 부정문이란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문이며, 화용론적 부정문이란 명제 내용이 아니라 음운(발음), 형태, 적절한 어휘 등, 발화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는 부정문을 말한다.

약을 보인다.

(14) ㄱ. 재민이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ㄴ. *재민이를 아무리 깨우면 안 일어난다.

(14)는 '아무리 -아/어도'가 사용된 (14ㄱ)에서 '-아/어도'를 삭제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14ㄴ)을 보면, '양보'의 '-아/어도' 을 '조건'을 나타내는 '-면'으로 대체하면 적절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이는 '아무리'가 '-아/어도'와 같은 양보의 연결어미를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즉, '아무리'가 '-아/어도'에 대하여 의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5) ㄱ. 거기 비상계단까지 가는 거리는 아무리 길어봤자 십 분 이상이 안 돼요. (SBRW1900000213.1.1.837)
ㄴ. 연습을 아무리 하더라도 실제 경기를 한 번 뛰는 거하고 달라요? (SBRW1900000936.1.1.732)
ㄷ.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삼십분 정도밖에 안 돼요. (SBRW1900001243.1.1.858)

그런데 '아무리'는 양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법소라면 '-아/어도'가 아니어도 어울리는 듯하다. 실제로 말뭉치 검색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아/어도'가 아닌 다른 어미와 어울리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15)에서는 '-어 봤자'와 같은 구성이나, '-더라도', '-(아/어)야'와 같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들이 '아무리'와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아무리'는 이때까지 주로 양태부사의 일종으로 연구되었다. 서정섭(1991: 143)에서는 '아무리'의 의미를 [부정적 극성의 양보][32]로 보면서도, 형용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파악하였다. '아무

32) '아무리'가 사용된 문장에서 주로 후행절에 부정문이 출현하기 때문에 [부정적 극성의 양보]로 본 것인데, '아무리'가 꼭 부정문과 함께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ⅰ) 네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학원에는 안 다닐 것이다.
(ⅱ) 그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리'가 양보의 정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의 의미가 미치는 영역(scope)은 '-아/어도'까지의 절에 한정되며, 후행절에 주로 부정문을 취한다는 점을 들어 부정의 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무리'를 조건의 화식부사, 즉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로 본 연구도 있다. '아무리'는 선행절이 조건절이 되도록 하는 조건성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녔으며, "무한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선행절의 조건이 무제한적이고 극단적으로 실행되어도 후행절의 결과가 정반대로 예상 밖의 상황을 보일 때 사용되므로 '극단적 양보'라 할 수 있다"(장영희 1997: 228)는 것이다.

목지선(2020: 71)에서는 '아무리'의 용법에 따라 성분부사로서의 '아무리'와 양태부사로서의 '아무리'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성분부사인 '아무리'는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부사로, 문장부사인 '아무리'는 양보문의 선행절을 강조하는 양태부사로 보았다. 앞선 서정섭(1991)이나 장영희(1996, 1997)의 논의에서와 달리, 목지선(2020)은 '아무리'가 '조건, 양보, 가정' 등 명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닐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무리'가 부사로서 수의적인 성분이면서 동시에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무리'가 양보문의 선행절을 강조한다는 목지선(2020)의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를 정도부사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가 보이는 강력한 통사적 제약 때문이다.

(ⅲ) 배가 불러서 <u>도저히</u> 못 먹겠다.
(ⅳ) *배가 고파서 <u>도저히</u> 다 먹겠다.

이는 전형적인 부정극어 중 하나인 '도저히'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리'의 경우 후행절에 부정문이 출현하는 (ⅰ)과 긍정문이 출현하는 (ⅱ) 모두 문법적이지만, '도저히'는 후행절에 부정문이 출현하는 (ⅲ)만이 문법적인 문장이고 (ⅳ)와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아무리'가 긍정 또는 부정의 극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16) ㄱ. 민지가 사온 꽃이 {너무/무척/아주/좀…} 예쁘다.
ㄴ. *민지가 사온 꽃이 아무리 예쁘다.
ㄷ. 꽃이 아무리 예뻐도 당신보다는 못하다.

(16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도부사는 성분부사로서 후행하는 정도어의 정도 표시를 함으로써 수식·한정한다. 그런데 '아무리'는 홀로 정도어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16ㄴ)과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아무리'를 일반적인 정도부사와 동일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가 정도어와 어울릴 때에는 (16ㄷ)에서처럼 '예쁘다'가 점유하는 완전-개방 척도의 가장 오른쪽으로 수렴하는, 다시 말해 '예쁘다'의 정도를 거의 무한한 것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도를 표시하는 기능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의 정도 표시는 함께 사용되는 어미의 '양보' 의미와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에, 화자의 '기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33]. 이 역시 일반적인 정도부사와의 의미 기능상 차이이다.

3.2.1.2. 연결어미 '-아/어도'

'-아/어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연결어미 중 하나이다. '-아/어도'는 양보의 연결어미 중에서도 화자의 양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무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정섭 1991: 33). '-아/어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하여 동일 주어 제약을 지니지 않는다.

(17) ㄱ.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서정섭 1991: 35)
ㄴ.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황현동 2021: 258)
ㄷ. 날씨가 많이 덥더라도 우리는 소풍을 가기로 했다.

33) 이에 대하여는 3.2.3.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7ㄱ)은 표면적으로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다. 선·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나'이므로 후행절에서는 생략된 모습이다. (17ㄴ)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나'이다. 이때 후행절은 '나는 배가 안 불러.'와 같이 이중주어문이므로, 후행절 '배가 안 불러'는 '나는 배가 안 불러'의 서술어만 제시된 것이고, 주어는 역시 화자인 '나'이다. 그러므로 (17ㄴ) 역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한편 (17ㄷ)처럼 선행절의 주어는 '날씨', 후행절의 주어는 '우리'로 주어가 다르더라도 문법적인 문장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아/어도'가 동일 주어 제약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ㄱ. 지금은 글쓰기가 괴로워도 차차 익숙해질 것이다.
ㄴ. 잠을 오래 자도 계속 피곤하다.
ㄷ. 대단한 가수여도 공연 한 번에 관객을 10만 명이나 모으기는 힘들다.

또한, '-아/어도'는 서술어의 문법 범주에 대한 제약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18ㄱ)은 형용사, (18ㄴ)은 동사, (18ㄷ)은 '체언+이다'가 '-아/어도'와 결합한 예문인데,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밖에 후행절의 문장 유형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나, '-았/었-', '-겠-' 등의 시제 표지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편이라는 점(서정섭 1991: 52)에서 '-아/어도'는 강력한 통사적 제약을 지니는 언어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보는 곧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이다. 양보문의 구조는 따라서 선행절의 명제 내용으로부터 화·청자가 가지게 되는 기대를 후행절의 명제 내용을 통해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34] 또한 양보가 조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역시 여러 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장

34)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느긋이 웃으며 용납해 주었고, 동생들에게 관련된 일일 경우면 어느 때고 수락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목지선 2020: 71).' 와 같은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후행절이 꼭 표면적으로 부정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희 1996, 임동훈 2009, 박재연 2011, 박진호 2012 등), '-아/어도'는 선행절로 사실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을 모두 취할 수 있다.

한편 '-아/어도'는 양보 외에 대립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양보의 기대 부정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선행절을 통해 전제되는 기대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립을 이루어야 기대 부정이 성립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단순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도 '-아/어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 ㄱ. 준수는 툴툴거려도 말을 잘 듣는다.
ㄴ. 밤에는 시원해도 낮에는 덥다.

(19ㄱ)은 주어 '준수'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장인데, '툴툴거리다'와 '말을 잘 듣는다'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다. 또 (19ㄴ)ㄴ은 '밤'과 '낮'의 기온에 대하여 대조하여 설명하는 문장인데, '시원하다'와 '덥다'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다. 즉 (19)의 두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대조적인 서술어를 배치하여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아/어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2. '아무리 -아/어도'의 통사적 특징

본고에서는 '아무리 -아/어도' 전체를 하나의 구성으로 이해하기를 시도한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가 홀로 쓰이지 않고 양보의 의미를 지녔거나 양보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아/어도', '-지만', '-어야' 등의 어미나 '-어 봤자' 등의 구성과 함께 나타날 때에만 적격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는 통사적 특징에 주목한 결과이다.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보이지만, '아무리'가 보이는 강력한 통사적 제약은 이것이 홀로 쓰였을 때 의미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장은화(2021)에서도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하여, '아무리'는 '-어/아도'

등의 연결어미와 함께 쓰여야만 의미가 완성된다고 짧게나마 언급한 바 있다.이를 통해 볼 때 '아무리 -아/어도'는 앞서 살펴본 '-다 못해'에 비해 형태적으로 조금 더 느슨한 구성인 듯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리 -아/어도'를 '아무리 -지만', '아무리 -어야'나 '아무리 -어 봤자', '아무리 -더라도'와 같은 유사한 구성의 대표로 삼고자 한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아/어도'가 양보를 나타내는 가장 무표적인 어미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말뭉치 출현 빈도를 살피면 '아무리 -아/어도'의 구성은 20000건 이상[35] 검색되는 반면, '아무리 -어 봤자'는 342건, '아무리 -더라도'는 4282건 정도가 검색된다. 이처럼 검색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아/어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아무리 -아/어도'의 통사적 특징은 그 구성 요소인 '아무리'와 '-아/어도'가 지닌 것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리 -아/어도'는 동일 주어 제약이나 서술어의 문법 범주 제약, 후행절의 문형 제약, 선행절의 시제 표지에 대한 제약 등이 없이 다양한 어휘소·문법소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2.3. '아무리 -아/어도'의 의미적 특징

'아무리'는 '정도가 매우 심함(목지선 2020: 72)', '무한(장영희 1997: 43)'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그 의미의 영향권은 선행절에 제한된다(서정섭 1991)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절의 내용에서 포착되는 [+정도성] 자질은 '아무리'를 통해 극대화 되고, 이것은 '-아/어도'를 통해 후행절과 연결된다. 양보문에서는 선행절의 내용을 통해 기대되는 바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아무리 -아/어도'는 선행절 내용의 '지극히 높은 정도'가 후행절 내용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행

35) 말뭉치 검색 도구로 사용한 Visual Studio Code에서는 총 검색 결과를 20000건까지만 제공한다.

절의 명제 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정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목지선(2020)에서도 양보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로 “선행절 명제를 강화해 놓고 후행절에서 그 기대를 부정함으로써 전제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후행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 후행절을 강조하는 것(목지선 2020:72-73)”을 들고 있다.

(20) ㄱ. 그는 아무리 슬퍼도 늘 평온한 표정을 했다.
ㄴ. 민수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

(20ㄱ)의 경우, 선행절 서술어 ‘슬프다’의 정도를 무한에 가깝도록 크다고 가정하면, ‘평온한 표정을 하지 않음/할 수 없음’의 사태가 기대된다. 인간이 어떠한 감정을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느낄 때 그것이 대체로는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화·청자의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행절에서 주어 ‘그’가 ‘늘 평온한 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부정된다.

꼭 (20ㄱ)의 후행절이 아니라도 우리는 선행절을 읽으면서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된다. 그 기대의 내용은 다양할지라도, 공통적으로는 선행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태에 속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어도’ 절이 만드는 함축을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36](황현동 2021: 267-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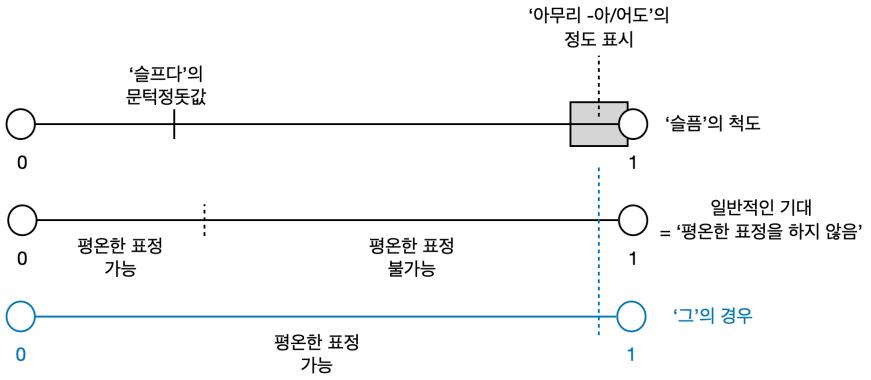
(20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행절 서술어 ‘덥다’의 정도를 무한에 가깝도록 높게 가정하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트’는 사태가 기대된다. 이 역시 세상에 대한 화·청자의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행절에서 주어 ‘민수’가 ‘에어컨을 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대가 부정된다.

이를 정도 표시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자. ‘아무리 -아/어도’로 나타난 선

36) Grice 식으로는 쉽게 취소될 수 없으므로 ‘고정함축’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현동(2021)에서는 대화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대화함축보다는 ‘-아/어도’가 갖게 하는 기대가 의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행절 명제 내용은, 선행절에 어떤 종류든 척도를 설정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의 정도를 극대화한 상황을 설정하도록 하여 명제 내용을 강화한다. 일반적인 기대로는 선행절 명제 내용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후행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선행절 내용의 정도가 얼마나 강조되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후행절의 명제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보다 부족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기대에 따른 사태가 일어나기 위한 문턱정돗값보다 '아무리 -아/어도'의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기 위한 문턱정돗값이 훨씬 큰 값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6]은 (20ㄱ)을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6] '그는 아무리 슬퍼도 늘 평온한 표정을 했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그림 6]의 첫 번째 척도를 보면, '아무리 -아/어도'는 선행절의 서술어 '슬프다'가 점유하는 척도에서 그 정도 표시를 무한에 가깝게 하는 역할을 통해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아무리 -아/어도'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기대가 함축되고, 그 함축된 내용은 두 번째 척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표현된다. '슬프다'의 문턱정돗값을 어느 정도 넘기게 되면[37] , 평온한

37) 구체적인 값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슬프다'가 참이 되기 위한 문턱정돗값을 웃도는 지점에서 '평온한 표정을 짓는 것'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19ㄱ) 문장에서 '아무리'를 삭제하고 그 의미를 관찰하면, 슬픈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꼭 평온하지 않은 표정만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함축된 기대의 내용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어도'가 포함된 문장이 갖는 결과적인 의미는, 그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척도와 같이 (19ㄱ)의 주어 '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아무리'가 표시하는 정도까지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3.3. '하도 -아/어서'

3.3.1. '하도 -아/어서'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3.3.1.1. 부사 '하도'

정도부사의 목록을 만들고 항목을 분류하는 정도부사의 체계에 관련된 연구[38]를 제외하고 '하도'는 부사 연구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단어이다. 이에, 부사 '하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대사전류에서 '하도'의 뜻풀이를 확인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3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수량이 아주 많게. '하9'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연세한국어사전》	아주 심한 정도로. 참고: '하'의 힘줌말.

[표 2] 부사 '하도'에 대한 대사전류의 뜻풀이

[표 2]를 통해 '하도'가 정도를 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

38) 서상규(1991), 김승곤(1996), 최홍열(1996), 손세모돌(1998), 서정수(2005) 등에서 '하도'가 언급되었다.

39) 한편 '하'에 대한 뜻풀이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나 의문문에 쓰여))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아주', '몹시'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주’, ‘몹시’ 등과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21) ㄱ. 손을 하도 비벼 대서 손금이 다 닳았다.
(SARW1800001315.1.1.1490 변형)
ㄱ’. 손을 {?아주/?몹시/너무/??좀/*거의} 비벼 대서 손금이 다 닳았다.
ㄴ. 저희가 하도 특이한 현상이어서 따로 한 번 더 다뤄 보려고 하니까 그때 좀 스튜디오에 나와 주십시오. (SBRW1900000566.1.1.623)
ㄴ’. 저희가 {아주/몹시/너무/?좀/*거의} 특이한 현상이어서 따로 한 번 더 다뤄 보려고 하니까 그때 좀 스튜디오에 나와 주십시오.

(21)은 실제 말뭉치에서 ‘하도’를 검색하여 도출한 예문 중 일부를 선택하여, ‘하도’의 자리에 ‘정도가 기준[40]보다 매우 높음’ 또는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는 ‘아주, 몹시, 너무’와, ‘정도가 기준보다 약간 높음’을 의미하는 ‘좀’, ‘정도가 끝점(endpoint)[41]에 가까움’을 의미하는 ‘거의’를 넣어 이들이 각각 ‘하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21ㄱ, ㄱ’)을 보면 (21ㄱ)에서 ‘하도’의 의미는 (21ㄱ’)에서는 ‘너무’로 대치하였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듯하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선행절 용언 ‘비비다’는 동사이다. 그런데 ‘아주’와 ‘몹시’는 동사와는 잘 공기하지 않고 주로 형용사와 공기하는 정도부사여서[42],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문장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좀’의 경우는 후행

40) 여기서 ‘기준’이란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화자의 내면에 정도어의 정도성에 대한 일종의 주관적 기준이 있어서, 그것과 비교하여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사용할 정도부사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준’은 척도 의미론의 ‘문턱정돗값’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1) 2.3. 참고
42) 특히 ‘아주’의 경우, 형용사와 공기할 때에는 ‘너무’나 ‘몹시’와 같은 정도부사와 같이 ‘기준보다 높음’을 의미하지만,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동사의 종결성(telicity)에 따라 종결점이 있는(telic)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완전히’의 의미로 사용되고, 종결점이 없는(atelic)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기준보다 높음’을 의미한다(박소영 2001: 95-97).

절의 내용과 호응되지 않아 어색함을 유발하며, '거의'의 경우는 '특이하다'가 완전-개방 형용사이기 때문에 끝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한편 (21ㄴ, ㄴ')의 경우, '좀'이나 '거의'를 제외한 '아주, 몹시, 너무' 모두는 '하도'의 의미를 잘 전달하면서도 적격한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이 수식하는 '특이한'이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좀'의 경우, (21ㄴ)과 비교하였을 때 문법적으로는 비문이 아닌 듯하지만 '하도'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정도표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는 이 문장에서도 성립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21ㄱ')의 경우와 같다.

이처럼 '하도'는 '아주, 몹시, 너무'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도'를 '아주, 몹시, 너무' 중 하나로 대치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몹시, 너무'를 항상 '하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ㄱ. 철수가 {아주/몹시/너무} 똑똑하다.
ㄴ. *철수가 하도 똑똑하다.
ㄷ. 철수가 {아주/몹시/너무} 똑똑해서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ㄹ. 철수가 하도 똑똑해서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ㅁ.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철수가 {아주/몹시/너무} 똑똑하다.
ㅂ. *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철수가 하도 똑똑하다.

위 (22ㄴ, ㄹ, ㅂ)는 한길(2012: 188)에서 가져온 예문인데, 이는 '하도'가 지닌 통사적 제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도'의 통사적 제약은 (22ㄱ, ㄷ, ㅁ)에 견주어 보면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먼저 (22ㄱ, 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정도부사 '아주, 몹시, 너무'는 단문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반면 '하도'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22ㅁ, ㅂ)을 보면 정도부사 '아주, 몹시, 너무'는 복문의 선행

절, 후행절 서술어를 가리지 않고 수식할 수 있지만, '하도'는 후행절 서술어를 수식하면 문법적으로 적격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22ㄷ, ㄹ)을 보면, '하도'는 선행절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장은화(2021)에서는 '하도' 역시 홀로 쓰일 때에는 그 의미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의 연결어미 '-아/어서' 등을 요구하는 '하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3.3.1.2. 연결어미 '-아/어서'

연결어미 '-아/어서'의 의미는 다양하게 관찰되어 왔다. [원인], [이유], [계기], [목적], [선행사건], [방식] 등이 그것이다(박지용 2020: 67-70).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적인 '-아/어서'의 의미는 [원인]과 [이유]. [계기] 정도가 꼽히는데 이는 또 다른 연결어미 '-니까'와 비교·대조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남기심 1978a, 장경희 1993a; 1993b, 임은하 2002 등 참고). 분명한 것은 '-아/어서'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를 시간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이다.

한편 '-아/어서'는 동일 주어 제약이 없다.

(23) ㄱ. 민주가 <u>아파서</u> 학교에 못 왔다.
ㄴ. 물을 많이 <u>마셔서</u> 배가 빵빵하다.
ㄷ. 비가 <u>와서</u> 축구를 못했다.

(23ㄱ)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민주'로 완전히 같은 경우이다. (23ㄴ)은 선행절의 주어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나', 후행절의 주어는 '배'이지만 '배'가 선행절 주어 '나'의 신체 일부이므로, 동일한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ㄷ)에서 선행절의 주어는 '비', 후행절의 주어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나' 또는 '우리'인데,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지만 문법적인 문장이 성립되고 있다.

(24) ㄱ.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마라.
ㄴ. *비가 와서 축구를 하지 말자.

한편 '-아/어서'는 (24)와 같이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이미 알려져 있다. 또, 시제표지 '-았/었-'과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3.3.2. '하도 -아/어서'의 통사적 특징

'하도 -아/어서' 구성의 경우, 연결어미가 '-아/어서'가 아니더라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선후관계 만들어 주는 표현과 호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슨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25) ㄱ. 번개가 하도 쳐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ㄴ. 네가 하도 놀리니까 영수가 풀이 죽었다.
ㄷ. 형이 잘 부탁한다고 하도 신신당부하길래 신경을 좀 썼다.
ㄹ. 어릴 때부터 하도 혼나 가지고 아무렇지 않다.
ㅁ. 학교가 집과 하도 가깝기 때문에 지각할 일이 없었다.

(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도 -아/어서'의 경우 연결어미로 반드시 '-아/어서'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어서'의 자리에 오는 어미 또는 구성이 '-아/어서'와 마찬가지로 [원인], [이유], [계기]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아/어도'와 유사하다. '하도 -아/어서'는 (25ㄴ)의 '하도 -니까', (25ㄷ)의 '하도 -길래', (25ㄹ)의 '하도 -아/어 가지고', (25ㅁ)'하도 -기 때문에'와 같은 모습으로도 출현한다.

그러나 '아무리 -아/어도'와 마찬가지로 '-아/어서'는 양태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상대적으로 무표적인 어미이다. 동시에 실제 말뭉

치에서도 '하도 -니까'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미이므로 '하도 -아/어서'를 그 대표로 삼으려 한다.

한편 '하도 -아/어서'통사적 제약은 '-아/어서'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일 주어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를 취할 수 없다. 이는 '하도 -니까', '하도 -길래', '하도 -아/어 가지고', '하도 -기 때문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징이다.

(26) ㄱ.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축구를 하지 {*말자/*마라}.
ㄴ.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축구를 하지 {*말자/*마라}.
ㄷ. 비가 하도 많이 와 가지고 축구를 하지 {*말자/*마라}.

이 중 (26ㄴ) '-길래'와 (26ㄷ) '-아/어 가지고'의 경우, '하도'와 결합하지 않아도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하도'와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법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런데 (26ㄱ)의 경우, 연결어미만 단독으로 출현하면 후행절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와 함께 출현하면서 그 통사적 제약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도 -아/어서' 역시 다른 정도표현들과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정도성] 자질을 갖추기만 했다면 그 문법 범주와 관계없이 호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도 -아/어서' 역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모두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7) ㄱ. 그때 저는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하도 비리가 많고 그러니까.
(SARW1800001315.1.1.530)
ㄴ. 언니 말로는 하도 말을 듣지 않아 유배를 보낸 거라는데 자기는 머리가 복잡해서 쉬러 온 거라는 조카. (SARW1900000675.1.1.14)
ㄷ. 지민이는 집안이 하도 부자라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

(27ㄱ)은 '하도 -아/어서'와 형용사가 호응한 사례이고, (27ㄴ)은 동사가, (27ㄷ)은 '명사+이다'가 호응한 사례이다. 그런데 '하도 -아/어서'에는 '-다 못해'나 '아무리 -아/어도'와는 다른 경향이 발견된다. '-다 못해'와 '아무리 -아/어도'도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호응하는 것은 사실이나, 말뭉치를 살펴보면 형용사나 심리동사와 가장 많이 호응하고,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하도 -아/어서'의 경우, 동사 중에서도 동작성이 뚜렷하여 특정한 작용이나 현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동사와 더 많이 함께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관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이어가겠다.

3.3.3. '하도 -아/어서'의 의미적 특징

'하도'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척도에서 높은 위치를 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아무리 -아/어도'이 지정하는 정도가 척도상의 최댓값을 포함하거나 최댓값에 수렴할 정도로 큰 정도라면, '하도 -아/어서'의 경우는 해당 서술어가 참이 되기 위해 지니는 문턱정돗값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위치 또는 범위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척도상 위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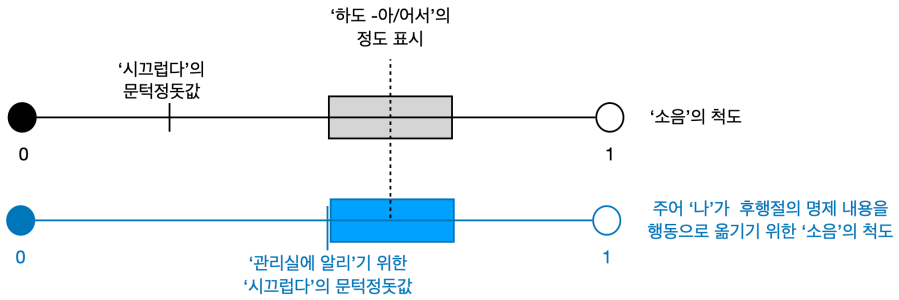
또한, '아무리 -아/어도'의 경우 그 구성이 양보의 연결어미 '-아/어도'를 포함하므로, 화자가 문장을 통해 얻은 기대에 대한 함축이 후행절의 명제 내용을 척도에 위치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지만, '하도 -아/어서'는 그렇지 않다.

'하도 -아/어서'의 경우, [원인], [이유], [계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를 통해 선행절의 서술어의 정도가 후행절의 사태를 실현시킬 만한 개연성을 만족시킬 만큼의 정도임을 전달한다.

(28) ㄱ. <u>하도 감정 변화가 극심해서</u> 병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SARW190000020.1.1.35)

ㄴ. 윗집이 <u>하도 시끄러워서</u> 관리실에 알렸다.

(28ㄱ)의 경우 '감정 변화가 극심하다'의 서술어인 '극심하다'가 척도를 설정할 수 있는 형용사이며, '하도'를 통해 그 척도상의 위치를 높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정도가 후행절의 사태 '병이라는 단어를 붙이다'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켜 두 사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8ㄴ)의 경우, 선행절의 서술어 '시끄럽다'는 성상 형용사로 역시 척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 -아/어서'는 '시끄럽다'의 정도가 척도상 높은 위치에 있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시끄럽다'의 정도는 '-아/어서'를 통해 후행절에도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후행절에서 화자가 '관리실에 알리'는 사태를 행동에 옮길 만한 정도에 다다르거나 이를 넘어섰음을 가리키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28ㄴ)의 의미를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윗집이 하도 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알렸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그림 7]의 첫 번째 척도를 보면, '하도 -아/어서'는 선행절의 서술어 '시끄럽다'가 점유하는 척도에서 그 정도 표시를 문턱정돗값과 다소 먼 범위에 하도록 하여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하도 -아/어서'의 구성 요소인 '-아/어서'는 사건의 선후관계를 바탕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선행절의 '윗집이 시끄럽다'라는 명제 내용은 '관리실에 알렸다'라는 후행절의 내용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면서 [원인], [이유], [계기]들의 관계를 맺는다. '시끄럽다'의 문턱정돗값은 이러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의하여 '하도 -아/어서'가 표시하는 정도의 범위에 근접하게

당겨지며 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척도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시끄럽다'의 문턱정돗값이 문장의 다른 요소로 인해 조정되는 것은 Bayesian 추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Bayesian 추론이란 Bayesian 통계학에서 상정하는 추론의 하나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인데, 사전확률이란 데이터에 대한 관찰 이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직관을 의미한다. 한편 사후확률이란, 실제로 데이터를 관찰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확률에 대한 가설을 수정/갱신(update)하는 것이다(후박문·박진호 2022:401). Lassiter&Goodman(2013)에서는 이러한 사전확률과 사후확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어떤 형용사의 문턱정돗값이 문맥상의 다른 정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28ㄴ)에 적용해 보자면, (28ㄴ)을 접하기 전 청자(또는 독자)는 '시끄럽다'의 문턱정돗값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림 7]의 첫 번째 척도에 나타난 문턱정돗값에 해당한다. 그런데, (28ㄴ)을 접한 청자(또는 독자)는 '관리실에 알렸다'라는 후행절과, 선행절에 사용된 '하도 -아/어서'를 통해 (28ㄴ)에 한해서 '시끄럽다'의 문턱정돗값을 상향조정한다. '하도 -아/어서'로 정도가 표시될 만큼 '시끄럽다'의 척도상 위치가 높아야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과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4. '한 X 하-'

3.4.1. '한 X 하-'를 구성하는 요소의 통사와 의미

3.4.1.1. 관형사 '한'

'한 X 하-'에서 '한'은 관형사 '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43]. 이러한 '한 X 하-'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형사 '한'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형사 '한'은 수관형사

43) 이는 'X' 자리에 명사만 출현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로서 수량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문장에서 불특정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같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유현경(2008: 73)에 따르면 '약, 대략'의 의미와 통하는 부사로서의 '한'도 존재한다.

(29) ㄱ. 명수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ㄴ. 안개 냄새가 빈민가에서 살던 한 소년을 상기시킨다.
ㄷ. 평생 한 이불을 덮고 잤건만 이젠 은근히 구박을 준다.
ㄹ. 한 일 주일가량은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

유현경(2008: 66)

(29ㄱ)은 '한'이 단위성 명사 앞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로 사용된 예이다. (29ㄴ)에서는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지시관형사로서 '한'이 사용되었다. (29ㄷ)의 경우 '같은'의 의미를 지니는 성상관형사로 '한'이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29ㄹ)에서는 '한'이 '대략, 약'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한'의 용법은 매우 다양하며 그 문법적 지위도 용법에 따라 여럿이다. 그러나 '한 X 하-'가 이들 중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특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 그 문법 범주가 관형사이므로 일반적인 관형사와 유사한 통사적 제약을 보인다. 먼저, '한'은 전형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또, 수 관형사나 지시관형사로 사용될 때에는 가산명사와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같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로 사용될 때에는 구체명사부터 추상명사까지 두루 수식할 수 있다.

3.4.1.2. '하다'

'하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노래하다', '목욕하다' 등의 동사가 '노래를 하다', '목욕을 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위험하다'처럼 명사를 형용사로 반들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기능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 문법적 지위를 설정함에 있어 어려운 면이 많다(서상규 1991: 5-22). 그런데 '한 X 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다'에 본래적이고 어휘적인 의미[44]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30) ㄱ. 아까 그 사람 표정을 보니 한 성격 하는 것 같다.
ㄴ. 진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0ㄱ)을 보면, '하다'의 어휘적인 의미는 사실상 드러나지 않고 '한 성격 하-' 전체가 '성격이 불같다', '성격이 모난 데가 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0ㄴ)에서도 '하다'의 어휘적인 의미가 살아있다기보다는 '한 술 하-' 전체를 통해 '술을 무척 잘 마신다', '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주(2015: 35-36)에서는 구체적인 단어의 연쇄가 형식적, 기능적 측면에서 일반화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단어의 연쇄가 보이는 패턴까지도 언어 처리의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chunk)의 일부 자리가 의미적으로 잉여성을 띨 때, '하다'가 그 자리를 채우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표현 '한 X 하-'와 형식은 같지만 관형사 '한'의 의미가 살아 있는 아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1) ㄱ.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SBRW1900007707.1.1.788)
ㄴ. 정말 한 그릇 하시더라고요. (SBRW1900010328.1.1.701)

후술하겠지만, (31)에 나타난 '한 X 하-' 구성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정도표현 '한 X 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구문에서의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X' 자리에 위치하는 명사

44) '하다'의 가장 본래적인 어휘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표준국어대사전》)로 이해할 수 있다.

‘자리’와 ‘그릇’을 통해 그 의미가 저절로 채워진다.

관형사 ‘한’의 본래 의미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31)은 관형사 ‘한’의 기존 용법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표현 ‘한 X 하-’보다는 굳어진 정도가 덜한 듯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미 (31)과 같은 예문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하다’가 채택되어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정도표현 ‘한 X 하-’에서의 ‘하다’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4.2. 합성적 의미의 ‘한 X 하-’와 정도표현 ‘한 X 하-’

‘한 X 하-’ 구성이 정도 표시의 기능을 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위의 (31) 예문과 같이 ‘자리, 그릇’ 등과 같이 분류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명사와 ‘한’이 어울려 사용되다가 ‘한 X 하-’의 의미가 발달하였을 가능성이다.

(31)의 예문들을 보면, ‘한’은 수관형사로서 ‘자리’, ‘그릇’의 수량을 표시하는 수관형사이거나,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의 지시관형사적인 용법은 담화에 처음 도입되는 신정보에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1ㄱ)의 경우는 이러한 용법을 용인할 여지가 있는 반면 (31ㄴ)의 경우는 부사 ‘정말’의 존재 때문에 이전 발화에서 ‘그릇’이 언급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31)의 ‘한’은 수관형사로서의 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또한, ‘한 자리 하다’, ‘한 그릇 하다’는 ‘하다’가 다른 서술어의 출현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자리 하다’의 경우 ‘꿰차다, 차지하다’ 등의 동사를, ‘한 그릇 하다’는 ‘먹다, 마시다’ 등의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서술어를 밝히지 않고 ‘하다’로 그 자리를 대신하더라도 논항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채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X 하-’ 역시 적당한 서술어를 명사에 후행시키는 것이 의미를 가장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겠으나, ‘하다’로 그 자리만 채워 놓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성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X’의 자

리에 분류사나 가산명사가 아니라 상태성 명사가 자리하는 추상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의 의미가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한다.

3.4.3. 정도표현 '한 X 하-'의 통사적 특징

3장에서 살펴 본 정도표현과는 달리, '한 X 하-'의 경우 구성을 이룰 수 있는 어휘의 유형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먼저 품사적으로는 명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명사인 어휘나, 형용사 또는 동사의 명사형과만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32) ㄱ. 명수는 한 재력 한다.
ㄴ. *명수는 한 부자 한다.
ㄷ. 명자는 한 미모 한다.
ㄹ. *명자는 한 미인 한다.

그런데 모든 명사가 정도표현 '한 X 하-'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32)에서 보이듯이, '재력'과 '부자', '미모'과 '미인'은 '전자가 의미하는 성질을 지닌 사람'이 후자의 의미라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재력'과 '미모'는 개체의 상태, 성질과 관련된 명사이고, '부자'와 '미인'은 그러한 상태와 성질을 지닌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인 것이다. 결국 정도성을 지니더라도 명사가 그 자체로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하지만 (33)=(30)를 다시 보자.

(33) ㄱ. 아까 그 사람 표정을 보니 한 성격 하는 것 같다.
ㄴ. 진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3ㄱ)의 '성격'과 (33ㄴ)의 '술'은 모두 상태나 성질 그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개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에 속한다는 점에서 (32)의 '부자', '미인'과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의 문장들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성격'과 '술'이 '부자'나 '미인'과는 달리 어휘 의미 내재적으로 척도를 지니지 않는, 다시 말해 [-정도성]의 명사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X 하-'와 '성격', '술'의 공기관계에 대한 관찰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얻어내기를 기대하며 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4.4. 정도표현 '한 X 하-'의 의미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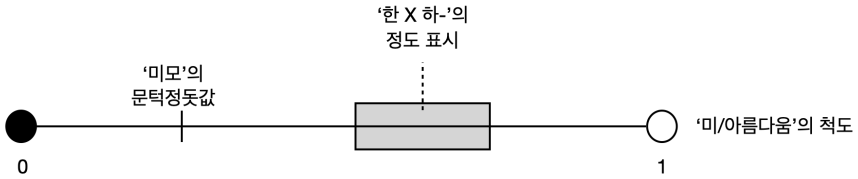
'한 X 하-'는 '주어가 X가 의미하는 속성을 높은 정도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도표현 '한 X 하-'의 예문이다.

(34) ㄱ.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한 미모 하셨습니다.
(SBRW1900003103.1.1.134 변형)
ㄴ. 배우 얘기하면 뭐 제가 또 왕년에 제가 한 인물 했잖아요.
(SBRW1900006173.1.1.112)

(34ㄱ)은 '한 X 하-'가 명사 '미모'가 점유하는 '미/아름다움'의 척도에서 높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34ㄱ)에서는 주어인 '아버지'의 서술부로 '한 미모 하셨습니다'가 사용되었다. 이는 주어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정도표현이 사용되고, 정도성 명사 '미모'가 정도표현의 명사 자리에 오면서, 전체가 '미모'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34ㄴ)의 경우 '인물'은 그 자체로는 정도성 자질을 지니지 않는 것임에도 '한 X 하-' 구성과 어울려 쓰였다[45]. (34ㄴ)에서는 구성이 이를테면 '외모가 아주 빼어나다'와 같이 '미/아름다움' 척도에서 높은 정도를 표시한다. (34ㄱ)을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45) (33)=(30)의 '성격', '술'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이면서, [-정도성]을 지니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림 8]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한 미모 하셨습니다.'의 척도의미론적 도식

[그림 8]을 보면 '한 X 하-'의 척도의미론적 도식은 다른 정도표현에 비해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ㄱ)의 '미모'는 이 단어를 구성하는 '미(美)'가 점유하는 아름다움의 척도를 따른다. 그리고 '한 X 하-'은 '미모'의 문턱정돗값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위치에 정도를 표시하므로, '한 미모 하다'는 '주어가 미모가 나타내는 성질을 높은 정도로 지니고 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정도표현과 공기어의 척도구조

지금까지는 정도표현에 속하는 각 항목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통사·의미적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각 항목이 통사적·의미적 특징의 차원에서 그 요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정도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척도의미론과 인접 개념을 활용하여, 각 정도표현의 공기관계에 대하여 관찰하려고 한다.

전술했듯이, 정도표현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정도부사와 유사한 특성이 많다. 또 그 구체적인 구조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도, 정도표현이 (일반적으로) 정도성을 지닌 다양한 어휘 항목과 어울리면서 그 어휘가 지니고 있는 척도구조에 정도의 위치를 대략적이나마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도표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을 위해서는, 정도표현과 어울려 사용되는 공기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 역시 빼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유계성과 척도구조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공기어가 어떤 정도표현과 어울리는지, 어울린다면 어떠한 의미적·화용적 특성 때문이며, 어울리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1.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어휘의 내재적 척도구조

4.1.1. 형용사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X 하-'를 제외한 다른 정도표현들은 모두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용된다.

(1) ㄱ. 아침 공기는 이제 선선하다 못해 조금 쌀쌀하네요.

(SBRW1900000187.1.1.8)

ㄴ. 아무리 괴로워도 내일까지만 참자.

ㄷ. 저희 부모님이 하도 교육열이 강하시니까 대학에 꼭 가도록 하셨어요.

(SARW1800001315.1.1.528 변형)

(1)을 통해 볼 때, '-다 못해',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는 모두 완전-개방 척도의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 못해'의 경우, (1ㄱ)처럼 선행절의 형용사와 후행절의 형용사가 의미적 강도의 차이를 가지면서 강한 유의 관계[46]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관찰된다. (1ㄴ)은 형용사의 정도를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ㄷ)의 경우는 '아무리 -아/어도'만큼은 아니지만, 형용사의 정도를 임의의 문턱정돗값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표시하고 있다.

한편 '-다 못해'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형용사와 두루 어울리는 듯하다.

(2) ㄱ. 너희 둘이 같은 옷을 입으니까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

ㄴ. 그 친구는 배려심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넘칩니다.

(2ㄱ)의 경우, '비슷하다'는 완전-개방 척도구조를 지니고 있다. '비슷하다'의 문턱정돗값은 준거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맥 의존적인데, 문턱정돗값이 문맥 의존적인 성질을 지닌 형용사는 상대성을 지닌다. 그런데 상대형용사는 완전-개방의 내재적 척도구조를 지니므로 '비슷하다' 역시 완전-개방의 척도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똑같다'는 상향

46) (1ㄱ)과 같이 '선선하다'와 '쌀쌀하다'는 언뜻 보면 '온도가 낮음'과 관련된 척도의 일정 범위를 나누어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개방 구조로 처리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온도를 '선선하다' 또는 '쌀쌀하다'고 표현할지의 문제는 화자의 주관의 영역일 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따뜻하다'를 '뜨겁다'의 특별한 경우로 보는 최근 화용론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2.3.4 참고)

-폐쇄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절대형용사이다. '똑같다'의 문턱정돗값은, 비교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상이 모든 면에서 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최대정돗값을 지닌다.

한편 (2ㄴ)은 선행절에는 형용사, 후행절에는 동사가 나타난 예문인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용언이 하나의 품사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둘 이상의 품사가 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절의 형용사 '가득하다'는 '똑같다'와 마찬가지로 상향-폐쇄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절대형용사이다. '가득하다'는 물체를 담을 수 있는 대상물의 내부가 그 물체로 완전히 채워져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까지만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득하다'는 최대정돗값을 지닌다. (2ㄴ)에서는 '가득하다'가 내재적으로 최대정돗값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에 동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가리(2014: 246)에서는 정도성이 함축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나 형용사와는 '-다 못해'가 공기할 수 없다고 보고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3) ㄱ. *최구(最久)하다 못해
ㄴ. *최귀(最貴)하다 못해
ㄷ. *최중(最重)하다 못해
ㄹ. *최고(最高)하다 못해

(진가리 2014:246)

(3ㄱ)의 '최구하다'는 '오래됨'의 척도를, (3ㄴ)의 '최귀하다'는 '귀함'의 척도를, (3ㄷ)의 '최중하다'는 '무거움'의 척도를, (3ㄹ)의 '최고하다'는 '높음'의 척도를 점유하는 어휘 항목들이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척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각 척도에서 특별한 경우[47]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각자의 척도에서 가장 높은 문턱정돗값을 지니고 있다. 뿐만

47) 'hot'을 'warm'의 특별한 경우로 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아니라, '최(最)-'가 '가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개체 중 가장 그 정돗값이 높다.

그런데 '-다 못해'는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척도함축을 발생시키고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정도의 높음'이라는 의미가 획득되는 구성이다. 이 때문에 '-다 못해'가 사용된 문장에서 선행절의 용언이 후행절의 용언보다 의미론적으로 약한 항목이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다. 그런데 (4)의 항목들은 각자의 척도에 자신보다 의미론적으로 강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인 척도구조만으로는 적절한 후행절이 오기가 어렵다. 따라서 (3)의 항목들은 '-다 못해'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아무리 -아/어도'의 경우, 상향-폐쇄의 척도구조를 지닌 형용사와는 맥락의 도움이 없이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없을 듯하다.

(4) 아무리 {기뻐도 / 심해도 / ??가득해도}

'기쁘다', '심하다'와 달리 '가득하다'는 '아무리 -아/어도'와의 공기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여준다. 이는 '아무리 -아/어도'가 정도를 표시하는 구간이 무한대로 수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4.1.2. 동사

동사와 어울리는 '-다 못해'는 그것이 정도표현의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도표현이 아니라 중단 전환의 의미가 살아 있는 '-다 못하-'인 경우이다.

(5) ㄱ. <u>참다 못해</u> 드디어 저도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SBRW1900006772.1.1.723)
ㄴ. 결국 <u>싸우다 못해</u> 미신 씨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SBRW1900010010.1.1.436)

그러나, 동사로 분류되는 용언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 못해'가 정도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6) ㄱ. 저는 술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SBRW1900007661.1.1.817)
ㄴ. 이웃을 원망하다 못해 또 증오하게 되고 (후략)
(SBRW1900002193.1.1.6)

(6)에 사용된 선·후행절 용언 '좋아하다', '사랑하다', '원망하다', '증오하다'는 모두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술어로서, (6ㄱ)의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는 긍정적 감정 중에서도 '호감'과 관련된 것으로 같은 의미자질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다'가 더 높은 어휘적 강도를 보인다. (6ㄴ)의 경우 '원망하다'와 '증오하다'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증오하다'가 더 높은 어휘적 강도를 보인다.

한편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의 경우에는 '-다 못해'에 비해 동사와의 공기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데[48],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향-폐쇄의 척도구조를 보이는 달성 동사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7) ㄱ. 주인공이 아무리 {??죽어도/?죽었어도} 나는 슬프지 않다.
ㄴ. ??민수가 하도 도착해서 마음이 급해졌다.

목지선(2020)에서는 '아무리'가 양태를 나타내는 명제부사와 정도를 나타내는 성분부사라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7ㄱ)에서의 '죽어도'는 사건구조상 종결점이 존재하는 달성 동사이다. '아무리 -아/어도'가 상향-폐쇄의 척도구조를 가진 형용사와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죽다'의 내재적 척도구조 역시 '아무리 -아/어도'와 공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8)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사와 주로 어울리는 것은 합성적 의미의 '-다 못하-'이다.

주어진 문장 외에 맥락으로부터의 정보가 없다면, 오히려 양태를 나타내는 명제부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마저도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죽었어도'가 사용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게 느껴진다. 동사의 척도구조 차원에서 '아무리 -아/어도'가 지닌 '정도의 극대화'가 일어나려면, 사건의 끝점(결과상태)가 존재하지 않아서 행위의 지속·반복을 상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완성 동사처럼 하위 사건 중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7ㄴ)의 경우 역시 '도착하다'라는 달성 사건의 동사가 사용되어 수용성이 매우 낮은 문장이 만들어졌다. 후행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였을 때 '빨리'와 같은 부사어가 '하도'와 '도착해서' 사이에 개재되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1.3. 명사

앞서 정도표현 '한 X 하-'의 경우 구성을 이룰 수 있는 어휘의 유형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명사 내부에 수식 구조가 존재하거나, 형용사 또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명사가 '한 X 하-' 구성을 이룰 수는 없다. 'X' 자리에 출현하려면 그 명사는 내재적으로 척도를 갖는 정도어이면서,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여야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8) ㄱ. ??명수는 <u>한 달리기 한다</u>.
ㄴ. ??명수는 <u>한 술 한다</u>.
ㄷ. 명수는 <u>한 귀여움 한다</u>.

(8ㄱ)은 과정의 사건 유형에 속하는 동사 '달리다'의 파생 명사 '달리기'가 '한 X 하-'의 'X'를 차지하고 있고, (8ㄴ)은 '술'이라는 개체의 집합을 지시하는 명사가, (8ㄷ)은 형용사 '귀엽다'의 명사형 '귀여움'이 '한 X 하-'의 'X'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맥락의 도움 없이도 정도 표시의 의미가 쉽

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8ㄷ)뿐이다. (8ㄱ)의 경우 '달리다'는 과정의 사건 유형에 속하므로 '시간의 지속 또는 반복'이 정도 표시의 자질과 일차적으로 호응하게 되는데, '한 달리기 한다' 전체가 '명수'의 성질을 설명하는 서술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내재적 척도구조만으로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어렵다. (8ㄴ)의 경우 '술'이라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정도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척도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맥락의 도움을 받거나, 대화 상황에서 화·청자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여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다.

4.2.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어휘의 우연적 척도구조

4.2.1. 내재적 척도구조가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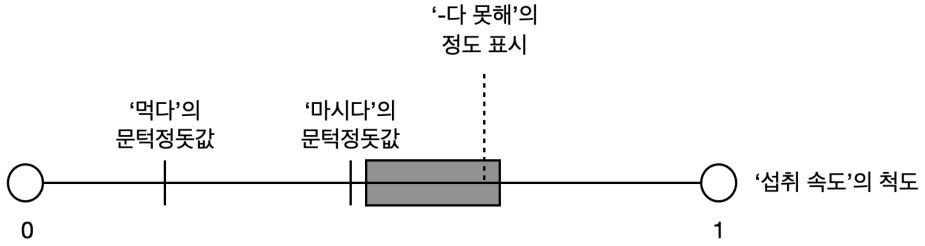
이번에는 공기어의 내재적 척도구조가 아니라, 맥락에 따른 우연적 척도구조를 통해 정도표현과 공기어가 호응하는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9) ㄱ. 하루 종일 밥을 굶었는지 비빔밥을 먹다 못해 마신다.
ㄴ. 주인공이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났다.

먼저, 앞서 동사와 공기하는 '-다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중단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 못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9ㄱ)을 보면 '-다 못해'와 함께 쓰임으로써 '먹다'와 '마시다'의 내재적인 사건 구조, 즉 '과정'에 따른 완전-개방의 척도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먹다'와 '마시다'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속도'의 척도를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먹다'보다 '마시다'가 섭취의 속도가 더 빠르다.

(9ㄱ)가 나타내는 우연적 척도구조에 따라 척도의미론적 도식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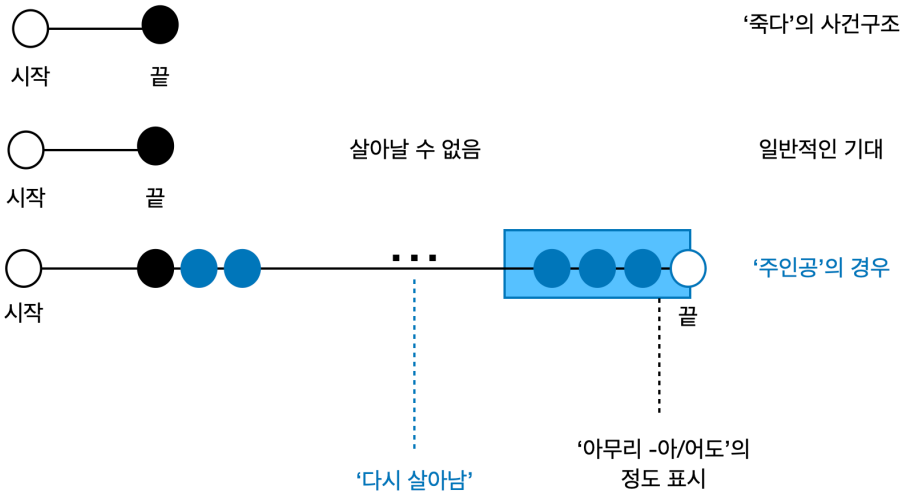
[그림 9] '하루종일 밥을 굶었는지 비빔밥을 먹다 못해 마신다.'의 우연적 척도구조

내재적 척도구조를 바탕으로 문장을 이해하자면 '먹다'가 나타내는 과정의 사건이 지속, 반복되는 정도가 심하여 '마시다'의 정도까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9ㄱ)에서 '먹다'와 '마시다'의 목적어는 '비빔밥'이므로, 통합관계를 고려하면 '먹다'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9ㄱ)의 화자가 판단하기에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마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9]과 같이 형용사와 공기하는 '-다 못해' 구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섭취 속도'의 척도에서 보았을 때, '먹다'의 문턱정돗값보다 '마시다'의 문턱정돗값이 더 크며, '-다 못해'는 '마시다'의 문턱정돗값을 웃도는 범위[49]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한편 (9ㄴ)의 경우, 예문의 '주인공'이 특정 시간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복되는 시간 중 일부에 한해서 죽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9ㄴ)을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49) [그림 7]에서 회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



[그림 10] '주인공이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났다.'의 우연적 척도구조

'죽다'는 본래 사건의 끝점이 존재하고 두 하위 사건 중 결과 상태에 중점이 있는 달성 사건의 동사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척도구조는 [그림 10]의 첫 번째 척도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9ㄴ)의 경우 특정한 시간 동안 하나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사건의 동사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세 번째 척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 척도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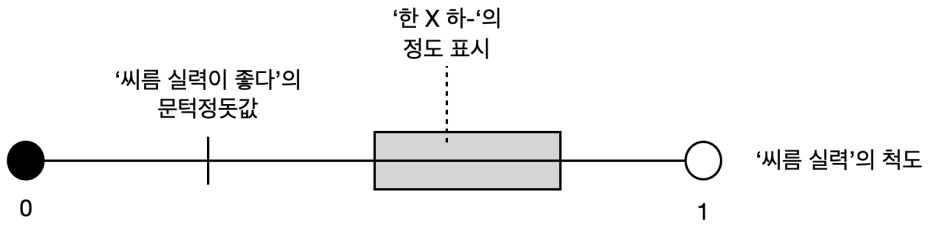
4.2.2. 정도어가 아닌 것이 척도구조를 새로이 지니는 경우

앞서 3.4.에서는 '한 X 하-'와 어울릴 수 있는 명사의 유형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예문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을 보았다.

(10) ㄱ. 한수는 덩치가 좋아 한 씨름 한다.
ㄴ. 진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씨름'과 '술'은 모두 개념이나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이면서, 정도성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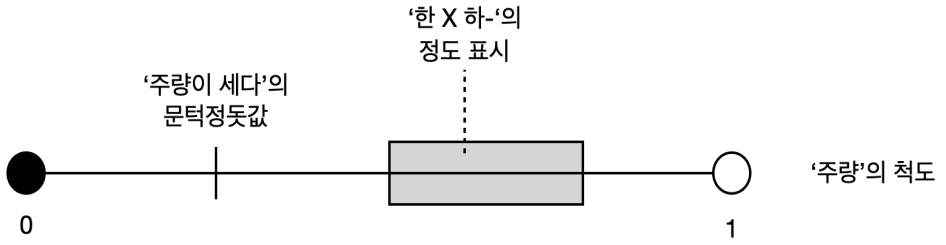
니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척도구조를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도표현이 지닌 '정도표시'라는 의미 기능이 정도어가 아닌 '씨름'과 '술'에 정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문장이 성립[50]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공통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척도구조를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10ㄱ)의 우연적 척도구조를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한수는 덩치가 좋아 한 씨름 한다.'의 우연적 척도구조

(10ㄱ)의 경우에는 '한 X 하-'를 통하여 '씨름'은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씨름 실력'이라는 척도를 새로이 상정할 수 있다. 이때 '한 씨름 하-'는 '씨름 실력이 좋다'의 문턱정돗값을 훨씬 상회하는 범위에 정도를 표시한다.

다음으로 (10ㄴ)의 우연적 척도구조를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진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술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의 우연적 척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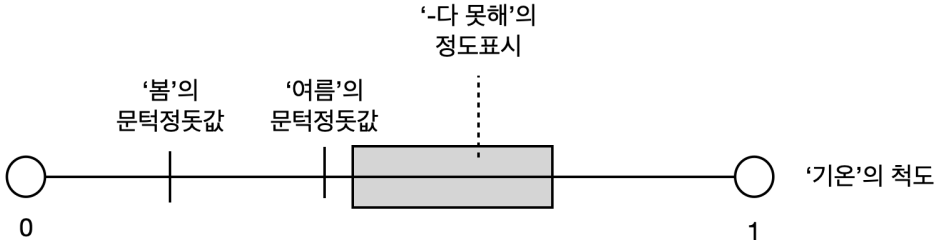
50) 이는 '한 X 하-'의 구성 요소인 관형사 '한'이 양화사처럼 기능하면서 '씨름'과 '술'의 어휘적, 문맥적 의미에 다수의 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0ㄴ) 역시 '술' 자체는 내재적 척도를 지니지 않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에 의해 '술'과 관련된 척도는 주로 술의 알코올 함량이나 술에 대한 지식, 또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양인 주량 등으로 새로이 설정될 수 있다. (10ㄴ)의 경우 '한 술 하-'의 주어가 사람인 '진수'이므로 '주량'의 척도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 이때 '한 술 하-'는 '주량이 세다'의 문턱정돗값을 훨씬 상회하는 범위에 정도를 표시한다.

한편, '-다 못해'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척도구조가 설정되는 사례가 있다.

(11) 이제 <u>봄이다 못해</u> 여름이라, 사람들이 반팔을 많이 입는다.

(11)의 경우 '-다 못해'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로 '체언+이다'가 쓰였다. 그런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체언은 각각 '봄'과 '여름'으로 어휘 의미 내재적으로는 정도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다 못해'를 통해 연결됨에 따라 두 계절의 차이 중 하나인 '기온'의 척도가 새로이 수립된다. 이에 더해, '사람들이 반팔을 많이 입는다'와 같은 문맥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기온'의 척도는 정당화된다. (11)의 우연적 척도구조를 척도의미론적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3] '이제 봄이다 못해 여름이라, 사람들이 반팔을 많이 입는다.'의 우연적 척도구조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름'이 평균적으로 '봄'보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여름'이 '봄'보다 더 큰 문턱정돗값을 갖는다. 그리고 '-다 못

해’를 통해 ‘여름’의 문턱정돗값을 상회하는 위치에 ‘기온’의 정도가 표시된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정도표현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살피고, 정도표현과 공기하는 언어 요소의 특징을 척도의미론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본고는 이전까지 정도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구성 차원의 정도표현 역시, 정도부사처럼 정도표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 척도의미론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를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밝히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한다.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일관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론적·논리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도성, 정도어, 정도 표시, 정도 표현에 이르기까지 정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다시금 정의하고, 정도부사와 정도표현을 견주어 봄으로써 정도표현이 정도부사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유사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척도의미론의 방법론과 유계성, 그리고 척도 구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공기관계 기술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각 정도표현을 구성하는 언어 요소들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관찰하고, 이것이 구성 전체의 통사·의미적 특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 못해'의 경우는 이를 구성하는 연결어미 '-다'의 [전환] 의미가 사라지고 '못하-' 역시 명제 내용이 아니라 발화 일부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상위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일종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는 각 구성요소의 의미가 전체 구성에서도 살아 있으며, 연결어미 '-아/어도', '-아/어서'가 지니는 통사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X 하-'의 경우 '한 그릇 하다', '한 자리 하다' 등의 사례에서 보이는 '한 X 하-'와는 달리 관형사 '한'의 의미가 매우 흐려졌음을 확인하였고, '하다'의 경우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포괄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적으로는 잉여적인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척도의미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도표현의 공기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런데 공기 가능성을 다룰 때에는

맥락의 개입을 고려해야 하므로, 척도구조를 다시 '내재적 척도구조'와 '우연적 척도구조'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정도표현은 공기어의 척도구조에 따라 강력한 제약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항목에 따라 몇 가지 제약을 보였다. 또한, 맥락에 의하여 어휘 내재적 척도구조와는 다른 우연적 척도구조를 지니게 되거나, 본래 정도성이 없어 척도구조를 상정할 수 없었던 항목이 새로이 우연적 척도구조를 지니게 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재적 척도구조를 바탕으로 해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해석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정도 표시라는 의미를 품사 차원에서 나아가 구성 차원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 한국어의 정도 표시가 어휘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을 통해 나타남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부족함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협의의 정도표현을 총망라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든 언어 체계에는 예외가 존재하고,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거나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원이나 의미적·통사적 특징, 화용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포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도부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정도부사의 체계가 점차 명확해진 것처럼, 정도표현에 대해서도 그러한 체계가 느슨하게나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대하여는 후일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김남탁(1995), 정도성 연구, 문학과 언어 14, 문학과 언어연구회, 5-22.

김준기(2010),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1-26.

고혜원(2011), 정도부사 '너무'의 의미와 공기 특성, 어문론집 46, 중앙어문학회, 121-139.

고혜원(2015), 정도부사 '너무'와 '몹시'의 의미와 기능,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7-29.

김성란(2006),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4,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471-486.

김송희(2014),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송희(2017), 한국어 부사 '거의'의 근접성과 양화, 어문학 136, 한국어문학회, 1-34.

김준기(2010),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1-26.

김혜영·강범모(2010), 구어 속 강조적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101-129.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목지선(2020), 양보 표현에 결합하는 부사 '아무리'와 '비록'에 대한 연구, 어문학 148, 한국어문학회, 65-97.

박동근(2007), 현대국어 강조부사 범주의 설정과 기능적 분석, 한글 275, 한글학회, 129-163.

박소영(2001), 정도부사 '아주', '거의', '매우'의 의미와 분포, 담화와 인지 8, 담화·인지언어학회, 85-108.

박지용(2020), 원인·이유의 연결어미 '-아서'와 '-니까' 연구,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배진영(2012), 구어와 문어 사용역에 따른 정도부사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54, 국제어문학회, 95-140.
서상규(1991),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해, 연세어문학, 219-266.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한신문화사.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소상호(1998), 대화조건과 척도함축, 현대문법연구 13, 현대문법학회, 133-155.
손춘섭(2000), 현대국어의 정도어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손춘섭(2001), 정도부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의미학회, 97-130.
신우봉(2016), 제주방언 정도부사 연구 - 목록과 분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5-36.
신지연(2002), 정도부사의 범주화 기준에 대하여, 어문학 78, 한국어문학회, 71-87.
안주호(2003), 한국어 구어에서 정도부사 '되게'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149-166.
유현경(2008),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65-86.
윤평현(2005), 국어의 전환관계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73-102.
이기갑(2004), '-다가'의 의미 확대, 어학연구 4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43-572.
이석규(1987), 현대 국어 정도 어찌씨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재성(2017), 연결어미 '-다가'의 형태 의미와 의미 기능, 어문론총 74, 한국문학언어학회, 107-123.
이찬영(2020), 체언 수식 부사의 관형사성과 부사성, 한국어학 87, 한국어학

회, 167-199.
이충우(1986), 정도부사의 동사수식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영희(1996), 조건 화식부사의 의미·통사 연구, 국어교육 91, 한국어교육학회, 331-350.
장영희(1997), 화식부사의 의미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219-235.
장은화(2021), 한국어 정도성 부사의 의미 연구, 한국문화사.
전영철(2016), 한국어 의미 연구와 의미 이론, 한글 313, 한글학회, 5-25.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철주(1982), 현대국어의 정도부사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유미(2009), 한국어 사건 양화 부사의 의미론: 빈도와 정도, 시구간과 사건의 구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진가리(2014), '-다 못하-'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229-256.
천현진(2004), 척도상의 함축에 관한 담화 표상 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정진(2015), '과급'을 의미하는 '다 못해' 구성의 특징, 언어와 언어학 67,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5-227.
최지영(2020), 문법적 범주로서의 정도의 문제, 독어학 42, 독어학회, 151-172.
황현동(2021), '-어도' 절의 사실성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3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57-287.
Bolinger, J.(1972), *Degree Words*, De Gruyter.
Bybee, J.(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Frawley, W.(1992), *Linguistic Semantics*, Routledge.
Goodman, Noah D.&D. Lassiter(2015), Probablistic Semantics and Pragmatics in: Uncertainty in Language and Thought, in Lapin, S., Fox, C.(Eds)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Wiley.
Horn, Laurence R.(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121-174.
Horn, Laurence R.(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nnedy, C.&L. McNally(2005), Scale Structure, Degree Modification, and the Semantics of Gradable Predicates, *Language* 81, 345-381.
Lassiter, D.&Noah D Goodman(2013), Context, scale structure and statistics in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form adjectives,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3, 587-610.
Lassiter, D.(2017), *Graded Modality*, Oxford.
Levinson, S.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adis, C.(2001), Adjectives and Boundedness, *Cognitive Linguistics* 12, 47-65.
Pustejovsky, J.(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1), 47-81.

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자료

국립국어원(2020),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0), https://corpus.korean.go.kr

Abstract

A Scalar Semantic Study on the Degree-Modifying Expressions in Contemporary Korean

Chung, Minch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gree-modifying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a way to reveal the subjective judgement and evaluation of the speaker. The most typical way to denote degree in Korean is to use a set of vocabulary, so called 'degree adverb'. However, the expression representing the degree does not appear only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degree adverb'. We assume that the composition of two or more grammatical and lexical morphemes functions as a degree-modifying expression which is similar to 'degree adverb'.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argely twofold. First, we make a list of degree-modifying expressions and describe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Second, we introduce the concept of 'scale structure' so that we can present detailed explanation of the collocation of degree-modifying expressions.

In Chapter 2, we made efforts to establish a theoretical and logical

basis for consistent discussion of this paper. While reconsidering terms related to degree, we summarized the main concepts in the scale semantics. In Chapter 3, the observation of the linguistic elements constituting each degree-modifying expressions, and how this can be related to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degree-modifying expression as a whole.

Chapter 4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seen in the collocative relation of degree-modifying expressions by using the concept of scale semantics, which is presented in Chapter 2. It is confirmed that the degree-modifying expression and the lexical items in the collocation can differ in terms of the scale structure according to the context.

Keyword: degree, gradability, degree-modification, degree-modifying expression, scale semantics, boundedness, event structure, scale structure

Student Number: 2020-21874